

Longman

FLY HIGH
GRAMMAR





Chapter 01

수동태

Unit 1 능동태와 수동태

p.13

Check Up

- 1 (1) were painted (2) were made (3) was discovered
- 2 (1) was painted (2) are liked (3) was collected (4) will be played
- 3 (1) was killed by the hunter (2) was written by the woman (3) will be done by my father
- 4 (1) plays → is played (2) open → be opened (3) send → sent
- 5 (1) was hurt by the falling stone (2) is spoken in Brazil

- 1 (1) 이 그림들은 피카소에 의해 그려졌다.
 - ▶ 동사 paint의 목적어인 these pictures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주어가 복수, 시제가 과거이므로 동사는 were painted가 알맞다.
- (2) 많은 유용한 발명품들이 에디슨에 의해 발명되었다.
 - ▶ 동사 make의 목적어인 many useful inventions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주어가 복수, 시제가 과거이므로 동사는 were made가 알맞다.
- (3) 미국은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되었다.
 - ▶ 동사 discover의 목적어인 America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주어가 단수, 시제가 과거이므로 동사는 was discovered가 알맞다.
- 2 (1) 김 선생님은 지난달 집에 칠을 했다. / 그 집은 지난달 김 선생님에 의해 칠해졌다.
 - ▶ 동사 paint의 목적어인 집이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주어가 단수, 시제는 과거이므로 was painted가 된다.
- (2) 많은 아이들이 이 노래들을 좋아한다. / 이 노래들은 많은 아이들에 의해 선호된다.
 - ▶ 동사 like의 목적어인 these songs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주어가 복수, 시제가 현재이므로 동사는 are liked가 된다.
- (3) 자선 단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았다. /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 단체에 의해 모여졌다.
 - ▶ 동사 collect의 목적어인 money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주어가 단수, 시제는 과거이므로 동사는 was collected가 된다.
- (4) 양 선생님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것이다. / 바이올린은 양 선생님에 의해 연주될 것이다.
 - ▶ play의 목적어인 the violin이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미래시제의 문장이므로 동사는 「will + be + p.p.」의 형태가 된다.
- 3 (1) 그 사냥꾼은 코끼리를 죽였다. / 코끼리는 그 사냥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 동사 kill의 목적어인 the elephant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주어가 단수, 시제는 과거이므로 동사는 was killed의 형태가 되고 뒤에 「by + 행위자」가 온다.

(2) 그 여자는 수필을 썼다. / 그 수필은 그 여자에 의해 쓰여졌다.

▶ 동사 write의 목적어인 the essay가 문장의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주어가 단수, 시제는 과거이므로 동사는 was written의 형태가 되고 뒤에 「by + 행위자」가 온다.

(3)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 그 일은 아버지에 의해 행해질 것이다.

▶ 동사 do의 목적어인 the work가 주어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시제가 미래이므로 「will + be + p.p.」의 형태가 된다.

4 (1)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축구를 한다.

▶ 축구가 주어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주어가 단수, 사실을 말하므로 현재시제로 써야 한다.

(2) 문은 문지기에 의해 열릴 것이다.

▶ 동사 open의 대상이 되는 gate가 주어로 쓰인 것으로 보아 수동태 문장이다. 조동사가 있으므로 「조동사 + be + p.p.」 형식을 따른다.

(3) 편지는 너에 의해 보내져야 한다.

▶ 동사 send의 목적어인 the letter가 주어로 쓰인 것으로 보아 수동태 문장이다. 조동사가 있으므로 「must + be + p.p.」 형식이 되어야 한다.

5 (1) ▶ 돌에 의해 그녀가 다치는 것이므로 「be동사+p.p.」 형태의 수동태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2) ▶ 포르투갈 어는 말하여지는 것이므로 「be동사+p.p.」 형태의 수동태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Unit 2 수동태의 다양한 형태

p.15

Check Up

1 (1) be given to (2) was made to (3) was showed (4) was written

2 (1) built (2) started (3) completed

3 (1) run → to run (2) her friends → to her friends (3) visiting → visited

4 ① A cake was bought for him by me. ④ run → to run

5 (1) is called 'Baby' by her boyfriend (2) was made to tell everything by the police (3) was the monument opened

1 (1) 그들은 우승자에게 컴퓨터를 줄 것이다. / 컴퓨터는 우승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 be + p.p.」의 형태이다. 직접목적어가 주어로 쓰인 4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가 온다.

(2) 왕은 젊은이에게 자기 나라를 떠나게 했다. / 젊은이는 왕에 의해

그의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 사역동사가 쓰인 문장의 수동태에서 능동태의 원형부정사 목적격보어는 to부정사로 바뀐다.

(3) 판매원은 나에게 분홍색 카펫을 보여 주었다.

▶ 동사 show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4형식 동사이므로 수동태도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는 간접목적어인 me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이다.

(4)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를 썼다. / 소설 <1984>는 조지 오웰에 의해 쓰여졌다.

▶ 목적어가 주어로 쓰였으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2 A: 너에게 파나마 운하에 대한 문제를 낼게.

B: 좋아. 해 봐.

A: 운하는 누가 건설했지?

B: 프랑스 인들에 의해 시작되어서 미국인들에 의해 완공되었어.

▶ 세 개의 동사는 모두 수동태 문장에 쓰였으므로, 과거분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3 (1) 사자가 들판에서 뛰어 다니는 것이 목격되었다.

▶ 지각동사가 쓰인 문장의 수동태에서 목적격보어로 쓰인 원형부정사는 to부정사의 형태가 된다.

(2) 그녀의 새로운 식탁은 그녀에 의해 친구들에게 보여졌다.

▶ show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로 직접목적어인 her new table이 주어이므로 간접목적어인 her friends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3) 민속촌은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의해 방문되고 있다.

▶ The Fork Village는 visit의 대상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하므로 visit는 과거분사의 형태가 된다.

4 ① 나는 그에게 케이크를 사 주었다.

② 지붕은 우리에게 의해 파란색으로 칠해졌다.

③ 셔츠는 나의 아내에 의해 다림질 되었다.

④ 고양이가 길을 건너는 것이 목격되었다.

▶ ① buy는 목적어가 두 개이지만 직접목적어만으로 수동태를 만든다. 간접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④ 지각동사 see가 쓰인 문장의 수동태에서 목적격보어로 쓰인 원형부정사는 to부정사가 된다.

5 (1) ▶ 능동태 문장 Her boyfriend calls her 'Baby.'를 수동태로 바꾼 형태이다.

(2) ▶ 능동태 문장 The police made the thief tell everything.을 수동태로 바꾼 형태로 사역동사가 쓰였으므로 수동태로 고치면 목적격보어 tell이 to tell로 바뀐다.

(3) ▶ 능동태 When did they open the monument?를 수동태로 바꾼 형태로 「의문사 + be동사 + 주어 + p.p.」 형식으로 쓴다.

(2) By whom was this passport lost?

(3) This book will be made use of by us.

4 (1) ③ (2) ③ 5 (1) to (2) with (3) of (4) of

6 (1) Did you surprise → Were you surprised

(2) ran over → was run over

(3) laughed → laughed at (4) by → with

1 • 산들은 눈으로 덮여 있다.

• 부엌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구문이다. be covered with ~로 덮여 있다,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2 (1) 회의는 왜 열렸지?

(2) 콘서트는 언제 시작했어?

(3) 그 단어의 철자는 어떻게 쓰지?

▶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 구문은 「의문사 + be동사 + 주어 + p.p.」 형태이다.

3 (1) ▶ be worried about ~에 대해 염려하다

(2) ▶ whom과 by가 있으므로 의문문 수동태이다. 「By + 의문사 + be동사 + 주어 + p.p. ~?」의 형태로 쓴다.

(3) ▶ make use of라는 동사구가 쓰인 문장의 수동태로 동사구를 하나로 취급함에 유의한다.

4 (1) 그것이 잊혀지게 하지 마라.

▶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 주어 + be + p.p.」이며, 부정명령문의 수동태는 be 앞에 not을 넣는다.

(2) 콘서트홀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지어지지 않았다.

▶ 부정문의 수동태는 be동사 뒤에 not을 넣는다.

5 (1) 그의 거짓말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 be known to ~에 알려지다

(2) 우리 학생들은 축제에 만족했다.

▶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3) 나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는 것에 싫증난다.

▶ be tired of ~에 싫증나다

(4) 모든 것이 나에게 의해 돌보아질 것이다.

▶ 동사구의 경우 수동태 전환 시 하나의 동사로 취급한다. take care of ~을 돌보다

6 (1) 당신은 결과에 놀랐습니까?

▶ 내가 놀라게 된 것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의문사 없는 의문문의 수동태는 「Be동사 + 주어 + p.p.」이므로 Were ~로 시작하여야 한다.

(2) 나의 삼촌은 버스에 치였다.

▶ run over는 (차 등이) 치다의 뜻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3) 그는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 동사구는 수동태로 고칠 때 한 단어처럼 취급한다. laugh at ~을 비웃다

(4) 당신은 그의 보고서에 만족합니까?

Unit 3 주의해야 할 수동태

p.17

Check Up

1 with 2 (1) held (2) started (3) spelled

3 (1) My friends are worried about their grades.

▶ be satisfied는 by 대신에 전치사 with를 취한다.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Practice Test

p.18

- 1 (1) was closed (2) asked (3) is learned
 2 (1) be paid (2) painted (3) filled (4) to bark
 3 (1) are eaten (2) is, worn (3) is grown
 4 ① 5 ① 6 ② 7 ③
 8 (1) are washed (2) repaired (3) be delivered (4) was not invited
 9 (1) were, given (2) was, filled, with (3) let, be, forgotten
 10 (1) ① (2) ② (3) ①
 11 (1) showed, to (2) bought, for (3) seen, to
- 1 (1) 도로는 안전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차단되었다.
 ▶ street는 close의 대상이 되므로 수동태 문장이 알맞다.
 (2) 경찰은 그들에게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요구했다.
 ▶ 「ask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으로 능동태 문장이 알맞다.
 (3) 마이크로 소프트 엑셀은 대학생들에 의해 학습된다.
 ▶ Microsoft Excel은 learn의 대상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알맞다.
- 2 (1) 가정 주부들은 일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 보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housewives이므로 수동태가 알맞다. 앞에 조동사가 있으므로 be paid의 형태가 된다.
 (2) 이 초상화는 누구에 의해 그려진 것인가?
 ▶ paint의 대상이 되는 this portrait가 주어가 된 수동태 문장이므로 과거분사가 들어가야 한다.
 (3) 교실은 많은 책상과 의자들로 가득 찼다.
 ▶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4)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 지각동사 hear가 쓰인 문장의 수동태에서 목적격보어로 쓰인 원형부정사는 to부정사로 바뀐다.
- 3 (1) 개구리와 달팽이는 프랑스에서 먹어진다.
 ▶ frogs and snails는 '먹는' 대상이므로 are eaten이 알맞다.
 (2) 한복은 때때로 한국에서 입혀진다.
 ▶ hanbok은 '입는' 대상이므로 is worn이 알맞다.
 (3) 많은 목화가 이집트에서 재배된다.
 ▶ cotton은 '재배되는' 대상이며 불가산 명사이므로 is grown이 알맞다.
- 4 교회는 높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 locate는 be located in ~, be located on ~의 수동태 형태로 쓰여 '~(위)에 위치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 5 환자들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 환자는 돌보는 대상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알맞다.
- 6 고대 로마는 화재로 파괴되었다.
 ▶ Rome이 파괴된 것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알맞다.
- 7 내 동생은 학급 친구들에 의해 학급 회장으로 뽑혔다.
 ▶ my brother가 선출된 것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알맞다.
- 8 (1) 접시들이 휴에 의해 닦여진다.
 ▶ wash의 대상인 the dishes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2) 내 차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수리되었다.
 ▶ repair의 대상인 my car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3) 당신의 채소는 다음 주에 배달될 것이다.
 ▶ deliver의 대상인 your groceries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고, 조동사가 있으므로 be동사는 원형이 되어야 한다.
 (4) 나는 파티에 가고 싶었지만, 나는 초대 받지 못했다.
 ▶ invite의 대상인 I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알맞다. 수동태의 부정은 be동사 다음에 not을 쓴다.
- 9 (1) 누가 이 꽃들을 주었지? / 이 꽃들은 누구에 의해 주어졌지?
 ▶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의문사 + be동사 + 주어 + p.p.」이다.
 (2) 안 좋은 냄새가 교실을 채웠다. / 교실은 안 좋은 냄새로 가득 찼다.
 ▶ fill의 대상인 the classroom이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알맞다. fill은 수동태로 만들 때, by 이외의 전치사를 취하는 동사이다. be filled with ~으로 가득 차다
 (3) 이 사실을 잊지 마라. / 이 사실을 잊혀지게 하지 마라.
 ▶ 부정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 주어 + not + be + p.p.」 또는 「don't let + 주어 + be + p.p.」이다.
- 10 (1) 술에 취한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 운전자가 체포된 것이므로 수동태가 알맞다.
 (2) 우리는 선생님에 의해 벌을 받을 것이다.
 ▶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알맞다.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 be + p.p.」의 형태이다.
 (3) 나의 부모님은 나의 기말고사 성적표에 만족하였다.
 ▶ 부모님이 만족하시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알맞다.
- 11 (1) ▶ show가 쓰인 문장이 수동태로 쓰일 때 직접목적어가 주어로 쓰이면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가 쓰인다.
 (2) ▶ buy가 쓰인 문장이 수동태로 쓰일 때 직접목적어가 주어로 쓰이면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가 쓰인다.
 (3) ▶ 지각동사 see가 쓰인 문장이 수동태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로 쓰인 원형부정사는 to부정사로 바뀐다.

- 1 His hands were raised above his head by him.
- 2 (a) are made of (b) are also not driven
- 3 ⑤ 4 to run
- 5 (1) are searched (2) are told (3) uses (4) are allowed
- 6 ⑤ 7 (1) used (2) spoken

1 해석 | “나는 발 페달로 조종합니다.”라고 파일럿이 말했다. “오른쪽 페달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는 그의 옆에 있는 나무 운전대를 두드렸다. “위아래로 가려면 이 운전대를 사용합니다.” 그는 운전대를 앞쪽으로 돌렸다. “앞으로 돌리면 아래로 갑니다.” 그는 운전대를 뒤로 천천히 움직였다. “뒤로 돌리면 위로 갑니다.” 그는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운전대를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비행선은 다시 평행 상태로 돌아갑니다.”

▶ raised의 목적어인 his hands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며, 동사는 「be동사+p.p.」의 형태로 바뀐다.

2 해석 | 헨리 포드의 모델과는 달리 타우라이의 자동차는 철사로 만들어졌고, 엔진도 없다. 그것들은 내부에서 운전되는 것이 아니라 밀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타우라이의 차는 장남감에 가깝지만 타우라이와 그의 친구들에게는 이것들이 ‘차’이고 그들은 ‘운전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어른들이 진짜 차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의 철사 차를 좋아한다.

▶ (a) of 뒤에 재료가 온다. be made of ~으로 만들어지다
(b) 수동태의 부정문은 「be동사+not+p.p.」의 형태이다.

3 해석 | 여러 해 동안 나는 긴 귀 부엉이 사진을 찍고 싶었다. 나는 종종 야생에서 이 새들을 보았지만 그것들을 사진 찍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낮에는 뾰뾰한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다. 다른 작은 부엉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더 큰 부엉이와 독수리들에게 먹힐 수가 있다.

▶ 뒤에 「by+행위자」가 나오고 eat의 대상이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알맞다.

4 해석 | 울새는 친근한 새이다. 울새는 농장과 도시, 마을과 숲에 동지를 짓는다. 그들이 종종 잔디밭이나 골프장 위로 달아나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얇은 부리를 이용해 땅 속의 지렁이를 잡아먹는다. 울새는 또한 작은 열매와 벌레들도 먹는다.

▶ 지각동사가 쓰인 수동태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쓰인 원형부정사는 to부정사로 바뀐다.

5 해석 | 공항 게이트에서 항공사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한쪽으로 몰려서라고 요구한다. 승객들의 기내용 가방은 보안요원에 의해 검색된다. 승객들은 신발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는다. 보안요원은 승객들의 신발을 검사하기 위해 검색대를 사용한다. 그 후에 승객들은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1) ▶ 기내용 가방이 주어이고, 보안요원에 의해 검색되므로 수동형을 써야 한다. 주어가 복수이고 현재시제이므로 are searched가 된다.

(2) ▶ 승객들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듣는 것이므로 수동형을 쓴다.

(3) ▶ 보안요원은 검색대를 사용하는 주체가 되므로 능동형을 쓴다.

(4) ▶ 승객들은 비행기 탑승을 허락받는 것이므로 수동형을 쓴다.

6 해석 |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브라질 사람들은 천성이 외향적이고 친절하며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노래하고 삼바 춤을 추고 일광욕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해변에서 남녀 모두 가장 짧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다. 브라질 여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다.

▶ ⑤ 브라질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수동형 are considered가 되어야 한다.

7 해석 | A: 여보세요?

B: 예, 여보세요. 정보가 필요한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통화(돈)가 쓰이나요?

A: 잘 모르겠는데요. ‘엔’ 아닌가요?

B: 아,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영어가 많이 쓰이나요?

A: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B: 저, 당신은 여행사 직원 아닌가요?

A: 뭐라고요? 여행사 직원이라고요? 여기는 린다 미용실이에요.

B: 아, 미안합니다. 전화 잘못 걸었네요.

▶ 모두 동사 앞에 be동사가 있으므로 수동태로 써야 한다. 과거분사 형태로 고친다.

- 1** (1) What are the meats of these animals called?
(2) Pieces of chalk were found in the classroom by the teacher.
(3) My advice was paid no attention to by him.
- 2** (1) Can newspapers be used to study history by students?
(2) The door must not be left open by you.
(3) Why was the letter sent to the wrong address?
- 3** (1) was made for me by my girlfriend
(2)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class by his classmates
(3) English spoken in India (by them)
- 4** was made **5** was given
- 6** (1) I was not woken up by the noise.
(2) A baseball bat was made for his child by him.
(3) The homework must be finished by 9 o'clock by them.
- 7** (1) The basket was filled with various fruits.
(2) He was told to love his brother by his parents.
(3) The wound needs to be looked after by the doctor.
- 8** (1) Let the picture not be touched. / Don't let the picture be touched.
(2) I was surprised at the news of her suicide.
(3) An old woman was run over by a bus.
- 9** (1) The winners will be invited to the festival in France.
(2) The low places are filled with a lot of water.
(3) The girl was seen to clean the home for the aged.

- 1 (1) ▶ 주어진 단어 중 **be called**가 있으므로 수동형 문장을 만든다. 「call + A + B」의 능동형 문장을 「A + be동사 + p.p. + B」의 수동형 문장으로 만든다.
- (2) ▶ 발견되는 분필 조각들을 문장의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만든다.
- (3) ▶ pay no attention to ~는 ‘~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는 의미로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때 한 단어로 취급한다.
- 2 (1) 신문은 역사 공부하는 데 학생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 be + p.p.」이다.
- (2) 문은 너에 의해 열린 채 놓여져서는 안 된다.
▶ 「leave + 목적어 + 형용사」 구문이 수동태가 되면, 「주어 + be동사 + left + 형용사」의 어순이 된다. 그러므로 open 앞의 to는 없앤다.
- (3) 그 편지는 왜 잘못된 주소로 보내어졌니?
▶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의문사 + be동사 + 주어 + p.p.」의 형태이다.
- 3 (1) 나의 여자 친구는 나에게 신선한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주었다.
▶ 4형식으로 쓰인 make는 직접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쓰이면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가 쓰인다.
- (2) 그의 반 친구들이 그를 반장으로 선출했다.
▶ elect의 대상인 ‘그’가 문장의 주어로 쓰였으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 (3) 그들은 인도에서 영어를 사용하니?
▶ 의문사가 없는 수동태 문장의 어순은 「Be동사 + 주어 + p.p.」이다.
- 4 A: 이 영화는 몇 년 된 거지?
B: 그 영화는 1965년에 만들어졌어.
▶ make의 대상인 ‘영화’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 5 A: 이 인형은 어디에서 났니?
B: 내 친구 중 한 명이 내게 주었어.
▶ 동사 get의 대상인 doll이 문장의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 6 (1) ▶ 주어진 단어 중 woken은 wake(깨우다)의 과거분사로 was woken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어는 wake의 대상인 I가 되어야 한다.
- (2) ▶ 「make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의 4형식 문장을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로 만들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쓴다는 것에 주의한다.
- (3) ▶ 조동사가 쓰인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것으로 동사 finish의 대상인 the homework가 주어가 되어야 한다. 「조동사 + be + p.p.」의 어순으로 쓴다.
- 7 (1) 그 바구니는 다양한 과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 by 이외의 행위자를 쓰는 구문이다. be filled with ~으로 가득 차다
- (2) 그는 부모님에 의해 그의 동생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다.
▶ 「tell + 목적어 + to부정사」의 문장이 수동태가 된 경우이므로 love 앞에 to를 써야 한다.

- (3) 그 부상은 의사에 의해 돌보아져야 한다.
▶ 부상이 돌보아져야 하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하는데, to부정사의 수동태는 「to + be + p.p.」이다. look after는 동사구이므로 태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의 동사처럼 쓰인다.
- 8 (1) 그림에 손대지 마라. / 그림은 손대어져서는 안 된다.
▶ 부정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 주어 + not + be + p.p.」 또는 「Don't let + 주어 + be + p.p.」이다.
- (2)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나를 놀라게 했다.
▶ 동사 surprise의 대상인 me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이므로 be surprised at ~(~에 놀라다)을 이용한다.
- (3) 어떤 버스가 노파를 치었다.
▶ run over의 대상인 an old woman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만든다. run over는 동사구로 한 단어처럼 취급한다.
- 9 (1) 우승자들은 프랑스의 축제에 초대될 것이다.
▶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 be + p.p.」이다.
- (2) 낮은 지역은 많은 물로 가득 차다.
▶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 (3) 그 소녀는 양로원을 청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 지각동사가 쓰인 문장이 수동태가 될 때 목적격보어로 쓰인 원형부정사는 to부정사가 된다.

Actual Test

p.24

1 ③ 2 ② 3 ⑤ 4 ③ 5 ⑤ 6 ③ 7 ③ 8 ②

9 ③ 10 ①, ③ 11 is studied 12 are exported 13 ①

14 Where are these machines made by him? 15 ④

16 ② 17 are eaten 18 is, worried about

- 1 ① 그는 내게 책을 보여 주었다.
② 그들은 내가 그 영화를 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③ 엄마는 나에게 숙제를 하게 했다.
④ 건축가는 그 탑을 설계했다.
⑤ 교통사고는 나를 놀라게 했다.
▶ ③ 사역동사 make가 쓰인 수동태로 목적격보어인 원형부정사는 수동태에서 to부정사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do는 to do가 된다.
- 2 A: 스위스에서는 얼마나 많은 언어가 사용되니?
B: 거기서는 세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된다고 들었어.
▶ 언어는 말하여지는 대상이므로 언어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수동태가 된다. 주어가 복수이므로 be동사는 are가 맞다.
- 3 이 시계는 그의 여동생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다.
▶ This watch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주어가 단수이며, 시제는 과거임에 유의한다.
- 4 나는 그들의 결정에 의해 행복해졌다.
▶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형용사)」 구조의 문장이 수동태로 쓰인 경우로 목적격보어는 그대로 쓴다.

- 5 그것이 다음 주까지 끝내지도록 해라.
▶ Let이 사용된 명령문 수동태로 「Let + 목적어 + be + p.p.」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6 ① 그 병은 내 어린 남동생에 의해 깨졌다.
② 영어는 캐나다에서 말하여진다.
③ 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다.
④ 학교는 누구에 의해 지어졌나?
⑤ 나는 그녀에게 컵 하나를 사 주었다.
▶ ① 병이 깨지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써야 한다. broke를 was broken으로 고친다. ② 영어는 말하여지는 대상이므로 speaks를 is spoken으로 고친다. ③ be interested in ~에 흥미를 갖다 ④ 건물을 지은 행위자를 나타내야 하므로 전치사 by가 있어야 한다. Who를 By whom으로 고친다. ⑤ buy는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 A cup was bought for her by me.로 고친다.
- 7 • 그 동상은 조각가에 의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새 코트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사 주었다.
▶ make, buy 등의 동사는 직접목적어가 주어로 쓰인 수동태 문장에서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써야 한다.
- 8 • 접시는 많은 상장들로 가득 차다.
• 매니저는 직원들의 태도에 만족하지 않았다.
▶ 수동태의 「by + 행위자」에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이다.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 9 • 당신은 단체의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받는다.
• 선물은 당신의 할머니에 의해 당신에게 보내질 것이다.
▶ 「ask + 목적어 + to부정사」 구조의 문장을 수동태로 쓴 경우로 목적격보어로 쓰인 to부정사는 그대로 쓴다. send는 give와 마찬가지로 수어동사로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들 경우 간접목적어 앞에 to를 쓴다.
- 10 ① 이 텐트는 그에 의해 세워졌나?
②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③ 그녀는 할아버지를 닮았다.
④ 로봇은 집 청소를 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⑤ 그 의사는 환자들에 의해 존경받았다.
▶ 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수동태는 「Be동사 + 주어 + p.p.」의 형태이다. 과거분사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 this tent built가 되어야 한다. ③ resemble은 '~을 닮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이나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
- 11 영어는 한국인에 의해서 공부된다.
▶ study의 대상인 English가 주어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 12 많은 농작물들이 다른 나라들로 수출되고 있다.
▶ 수출되고 있는 것은 농작물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 13 그 대학은 학생들에게 iPhone 4를 사 줄 것이다.
▶ buy는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동사이지만 수동태를 만들 때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여 수동태를 만들고, 이때 간접목적어 앞에는 전치사 for를 써 준다.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의미가 부자연스러우므로 쓰지 않는다.
- 14 그는 이 기계들을 어디에서 만드는가?
▶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 문장은 「의문사 + be동사 + 주어 + p.p.」이

다.

- 15 어떤 종류의 개들은 긴 꼬리를 갖고 있고, 어떤 개들은 짧은 꼬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개 꼬리의 안쪽은 한 줄로 된 뼈들로 구성되어 있다. 뼈에는 근육이 거의 붙어 있지 않다.
▶ ④ make up of ~는 '~을 구성하다'의 뜻이고, 여기서 주어인 꼬리는 뼈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동태를 사용해야 한다. is made up of가 되어야 한다.
- 16 • 지갑은 그녀의 생일날 여동생에 의해 그녀에게 주어졌다.
• 시체는 의사에 의해 천으로 덮여졌다.
• 어떤 질문들은 그녀의 남편에 의해 그녀에게 주어졌다.
• 그는 그녀에 의해 정오까지 이곳에 오라고 요구받을 것이다.
▶ (a) give는 직접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에서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b)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문장이다. be covered with ~으로 덮여 있다
(c) ask는 직접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에서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of를 쓴다.
(d)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자는 전치사 by를 써서 나타낸다.
- 17 때때로 벌레들은 식물들에 의해 먹힌다.
▶ 벌레들과 식물 사이의 관계는 eat과 be eaten의 관계이고 문장 뒤에 by plants로 보아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 18 모든 엄마들은 항상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해 걱정한다.
▶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Chapter 02

to부정사

Unit 1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p.29

Check Up

- (1) to look (2) to buy (3) to send
- (1) take → to take (2) found → found it
(3) make → to make / making (4) take → to take
- (1) where to buy (2) to be paid (3) to go with
- (1) It, to, tell (2) me, to, stop (3) how, to
- (1) She asked the students to help her.
(2) Her hope is to get good grades.
(3) It is exciting to talk with other people on the Internet.

- (1) 그들은 더 나빠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
▶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2) 그 가방을 사기로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3) 나중에 편지 보내는 거 잊지 마.

▶ forget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여기서는 앞으로 할 일을 나타내므로 to부정사가 알맞다.

- 2** (1) 우리는 일요일에 아이들을 공원에 데리고 갈 계획이다.
▶ plan은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to take가 되어야 한다.
- (2) 나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 find가 5형식으로 쓰이고 목적어가 to부정사인 경우 가목적어 it을 사용한다. 「find + it + 목적격보어 + to부정사」
- (3) 내 취미는 장난감 로봇을 만드는 것이다.
▶ is의 보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to부정사나 동명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 (4) 그 경찰관은 그들에게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말해 주었다.
▶ 「의문사 + to부정사」가 명사구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3** (1) 그는 그 인형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모른다.
▶ 「의문사 + to부정사」가 명사구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 (2) 근로자들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
▶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고, 근로자들이 돈을 지급받으므로 수동형으로 써야 한다.
- (3)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
▶ hope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 4** (1) 거짓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 to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대개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사용하고 to부정사 구문은 문장의 뒤로 이동한다.
- (2) 내 아내는 나에게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 직접목적어로 쓰인 that절은 to부정사를 이용하여 5형식 문장으로 고칠 수 있다.
- (3) 그는 운전하는 법을 알고 있다.
▶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은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5** (1) ▶ 「ask + 목적어 + to부정사」의 형태이다.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므로 이것을 활용한다.
- (2) ▶ to부정사가 보어로 쓰인 경우이다.
- (3) ▶ it이 주어였으므로 it이 가주어가 되고 to부정사구는 형용사 뒤에 위치한다.

Unit 2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p.31

Check Up

- 1** (1) to help (2) to play with (3) to sleep
2 (1) are, to (2) to, be, written (3) is, to
3 (1) to play → to play with (2) eating → to eat
(3) keep → to keep (4) help → to help

- 4** (1) I need a house to live in with my family.
(2) There are many sights to visit in Seoul.
(3) You are to exercise every morning.

- 1** (1) 나는 날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형태가 알맞다.
- (2) 그는 같이 놀 친구들이 몇 명 있다.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의 a few friends를 수식하며 전치사가 필요함에 유의한다.
- (3) 여행자들은 밤에 잘 곳이 없었다.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의 nowhere를 수식한다.
- 2** (1) 너는 좀 더 창의적이어야 해.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 서술적으로 쓰이는 be to 용법은 '의무'인 should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 (2) 써야 할 편지가 두 통이 있어.
▶ '편지 두 통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쓰여질 편지가 두 통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to부정사가 앞의 명사 letters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만들며, to부정사의 수동태 형태가 된다. to부정사의 수동태는 「to + be + p.p.」이다.
- (3) 비오는 날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 서술적으로 쓰이는 be to 용법은 '가능'인 can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 3** (1) 아이들은 갖고 놀 장난감이 많이 있다.
▶ play with a lot of toys를 to부정사를 이용해 수식하는 형태로 써야 하므로 toys to play with와 같이 전치사를 써 주어야 한다.
- (2) 그들은 가족을 위해 먹을 쌀이 더 필요하다.
▶ 앞의 명사 rice를 수식하며 '~할, ~하는'의 의미로 쓰려면 to부정사가 되어야 한다.
- (3) 너는 이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 「be + to부정사」 용법 중 '의무'인 must, should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 (4)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요리하시는 것을 도울 것은 뭐든지 하신다.
▶ 앞의 명사 anything을 수식하며 '~할, ~하는'의 의미로 쓰려면 to부정사가 되어야 한다.
- 4** (1)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하여 a house를 to live in 이 수식하는 형태로 만든다.
- (2)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하여 sights를 to visit 이 수식하는 형태로 만든다.
- (3) ▶ be동사가 있고 should, must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be to 용법으로 만든다.

Check Up

1 ③

- 2 (1) 많은 한국인들이 축구 팀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2) 나는 낯선 거리에서 사촌을 만나 기뻐했다.
 (3) 그가 나에게 것처럼 말하더니 미친 것이 틀림없다.

3 (1) 원인 (2) 목적 (3) 결과 (4) 목적

- 4 (1) To see his face (2) to please her mother
 (3) clever to answer the question

- 5 (1) He is brave to tell the truth.
 (2) She grew up to be an engineer.

- 1 ① 사자는 큰 바위 위에서 쉬기 위해 멈추었다.
 ②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③ 그는 그 방을 들어갔으나 텅 빈 것을 알게 되었다.
 ④ 나는 첫 기차를 타려고 일찍 일어났다.
 ⑤ 우리는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 나머지는 '목적'을 나타내지만 ③은 '결과'를 나타낸다.
- 2 (1) ▶ to cheer는 '목적'을 나타내어 '응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한다.
 (2) ▶ to see는 '원인'으로 해석한다.
 (3) ▶ 앞에 must be mad(미쳤음에 틀림없다)로 보아 to tell은 판단의 근거가 된다.
- 3 (1) 그녀는 칭찬과 선물을 받아서 매우 기뻐했다.
 ▶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있으므로 뒤의 to get 이하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된 원인이 된다.
 (2) 그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 손을 든 목적을 설명하므로 '목적'을 나타낸다.
 (3) 그녀는 자라서 위대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 grow up과 같이 쓰이는 to부정사는 '결과'를 나타낸다.
 (4) 그는 살을 빼기 위해 이틀마다 조깅을 하러 간다.
 ▶ 조깅을 하는 목적을 설명하므로 '목적'을 나타낸다.
- 4 (1)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조건'을 나타낸다. If you see his face로 이해할 수 있다.
 (2) 그녀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가 되게 한다.
 (3) 그 아이는 질문에 답을 할 만큼 영리하다.
 ▶ to부정사의 용법 중 형용사/부사를 수식하는 용법이므로 clever 뒤에 to부정사가 오도록 만든다.
- 5 (1) ▶ to부정사의 용법 중 형용사/부사를 수식하는 용법이므로 brave 뒤에 to부정사가 오도록 만든다.
 (2) ▶ grow up 다음에 to부정사가 이어진다. 「grow up + to부정사」는 '결과'를 나타내어 '자라서 결국 ~이 되다'라는 의미이다.

Check Up

1 (1) of her (2) for you (3) of them 2 ②

3 (1) to not → not to (2) of him → for him (3) being → to be

4 (1) ② (2) ④ (3) ④ (4) ③

- 5 (1) It was wise of her to do the work.
 (2) He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
 (3) Mom told me not to turn on the TV.

- 1 (1) 그녀가 수업을 잊다니 부주의했구나.
 ▶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 careless가 쓰였으므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of + 목적격」을 써야 한다.
 (2) 네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for +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3) 그들이 컴퓨터를 망가뜨리다니 어리석구나.
 ▶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 stupid가 쓰였으므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of + 목적격」을 써야 한다.
- 2 그 밧줄은 그가 달기에는 너무 높다.
 ▶ too ~ for ...to 구문으로 to부정사 앞에 「for + 목적격」의 형태로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 3 (1) 나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 to부정사의 부정은 to 바로 앞에 not/never를 붙인다.
 (2) 그가 할 일이 없다.
 ▶ 일반적으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바로 앞에 「for + 목적격」의 형태로 나타낸다.
 (3) 그는 무례한 것 같다.
 ▶ seem은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한다.
- 4 (1) 나는 어제 너무 아파서 축제에 갈 수 없었다.
 ▶ 「too + 형용사/부사 + to부정사」 구문이 되어야 하므로 too는 형용사 앞에 와야 한다.
 (2) 그 소년은 그 책들을 이해할 만큼 영리하다.
 ▶ 「형용사/부사 + enough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enough는 형용사 다음에 와야 한다.
 (3) 그가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바로 앞에 「for +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4) 토미는 내게 그 계획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to부정사의 부정은 to 바로 앞에 not/never를 붙인다.
- 5 (1) ▶ it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주어 활용 구문이다. 형용사 wise가 있으므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of를 사용한다.
 (2) ▶ enough to를 활용한 구문이다. 「형용사/부사 + enough + to부정사」는 '...할 만큼 충분히 ~한'의 의미이다.
 (3) ▶ 「tell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을 이용한다. to부정사의 부정은 to부정사 앞에 not을 쓴다.

Practice Test

p.36

- 1 (1) to rely → to rely on (2) to never be → never to be
(3) to drive → how to drive
- 2 ④ 3 ③ 4 It, to 5 ③ 6 ② 7 ③ 8 ①
- 9 (1) too, to (2) where, to, stay (3) rich, enough, to, buy
- 10 (1) to break (2) to make 11 ①

- 1 (1) 나는 의지할 친구가 아무도 없다.
▶ rely on은 '~에게 의지하다'의 의미이므로 전치사 on이 필요하다.
- (2) 그는 학교에 늦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 to부정사의 부정은 to 앞에 not/never를 써야 한다.
- (3) 내 오빠는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안다.
▶ 문맥상 know와 to drive 사이에 의문사 how가 있어야 한다.
- 2 그 아이는 언제 출발해야 할지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 「의문사+to부정사」 구문에서 why는 이러한 형태로 쓸 수 없다.
- 3 외국에서 사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 가주어 it의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to부정사나 that절이다.
- 4 유명해지는 것은 어렵다.
▶ to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 보통 가주어 it을 사용하고 to부정사는 진주어로 문장 뒤로 보낸다.
- 5 • 밤에 거리에서 노는 것은 위험하다.
• 나는 한국에서 1970년대에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았다.
▶ 첫 빈칸에는 가주어가 필요하고, 두 번째 빈칸에는 가목적어가 필요하다.
- 6 •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 그는 거리에서 어떤 노인과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 목적어로 to부정사와 동명사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동사는 begin, start, continue, love, like 등이다.
- 7 • 나는 갖고 놀 장난감이 많이 있다.
• 나는 쓸 펜이 없어. 하나만 빌려 줘.
▶ '가지고 놀 장난감'과 '~로 쓸 펜'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with가 필요하다.
- 8 • 그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어리석다.
• 네가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였을 경우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of+목적격」, 그 밖의 경우는 「for+목적격」으로 나타낸다.
- 9 (1) 그는 너무 어려서 그 영화를 볼 수 없었다.
▶ 「so+형용사/부사+that+주어+cannot ...」은 '너무~해서...할 수 없다'는 의미로 「too+형용사/부사+to부정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2) 그는 어디에서 머물 것인지 알지 못했다.

▶ 「의문사+주어+should+동사원형」은 「의문사+to부정사」의 명사구로 바꿔 쓸 수 있다.

(3) 그 배우는 큰 건물을 살 만큼 부유했다.

▶ 「so+형용사/부사+that+주어+can ...」 구문은 「형용사/부사+enough+to부정사」 구문과 바꿔 쓸 수 있다.

10 (1) ▶ '돌을 깎 망치'의 의미이므로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의 형태가 알맞다.

(2) ▶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형태가 알맞다.

11 ① 그는 살 집을 지었다.

② 우리는 운동 후에 차가운 마실 것이 필요하다.

③ 그들은 같이 놀 친구들이 많다.

④ 그 가수는 깨어 보니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

▶ ① hous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live가 자동사이므로 전치사 in이 필요하다.

Grammar in Reading

p.38

- 1 ④ 2 ③ 3 (1) to recycle (2) to make (3) to recycle
- 4 (a) working (b) to take (c) to remember (d) to clean
(e) doing
- 5 (1) to miss (2) to talk (3) to do/doing 6 ②

1 해석 | A: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B: 음, 이 시계가 잘못된 거 같아요.

A: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B: 글썄요, 작동을 안 하네요.

A: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지요. 아, 건전지를 바꿔야겠네요. 그리고 청소도 해야겠어요. 그것뿐이네요!

▶ need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며, battery는 바뀌어야 하고, watch는 세척되어야 하므로 수동태로 써야 한다. to부정사의 수동태는 「to+be+p.p.」이다.

2 해석 |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을 근면하고 친절하며 존경받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제일 먼저, 부모는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정에 돈을 가져오는 훌륭한 방법이다. 돈이 있으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쉽다. 두 번째, 친절은 중요한 가치이다. 친절하면 사람들도 역시 당신에게 친절할 것이다. 세 번째, 친구, 가족 구성원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예의바른 것은 당신이 좋은 품성의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①은 teach의 목적격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②는 need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적 용법, ③은 a great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④는 진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 ⑤는 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3 해석 | 가정에서의 재활용은 에너지를 절약한다. 사람들이 신문을 재활용하면 새 종이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재생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는 원자재로 만들어진 종이보다 에너지를 덜 쓴다. 유리병을 재활용하는 것도 좋다. 재활용 유리로 유리를 만드는 것은 에너지를 덜 쓴다.

상품에 있는 재활용 표시 - 삼각형을 이루는 세 개의 화살표 - 를 찾아라. 가정에서 재활용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에너지 측면에서 진정한 절약을 의미한다.

- (1) ▶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진주어가 되어야 한다. **to**부정사가 알맞다.
 - (2) ▶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진주어구인 **to**부정사가 형태가 알맞다.
 - (3) ▶ 앞의 **the small efforts**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되어야 한다.
- 4 해석** | 나는 십대일 때의 어느 여름에 호텔 종업원으로 일했던 걸 잊지 못한다. 이모께서 그 호텔의 지배인이셨다. 그녀는 내가 그 여름 일을 하도록 권해 주셨다. 그녀는 내게 화장실을 정말 잘 닦을 것을 기억하라고 충고하셨다. 아무도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난 여름 일의 한 부분으로 그것을 하는 걸 언짢아하지 않았다.
- ▶ (a) **forget**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여기서는 과거의 일이므로 동명사가 알맞다.
 (b) **encourage**는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한다.
 (c) **advise**는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한다.
 (d) **remember**는 **forget**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여기서는 '청소를 (앞으로) 하라고' 한 내용을 기억하므로 **to**부정사가 알맞다.
 (e) **min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 5 해석** | 전화 응답기는 내가 바쁠 때 전화를 받지 않게 해 준다. 내가 누군가와 말할 시간이 없으면 난 응답기가 메시지를 받게 하고 계속 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한다.
- (1) ▶ **allow**는 「**allow** + 목적어 + **to**부정사」 형태로 쓰이며, 내가 바쁘므로 전화를 못 받는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to miss**가 알맞다.
 - (2) ▶ 앞의 명사 **time**을 수식하여야 하며 뒤에 **to someone**으로 보아 **to talk**가 알맞다.
 - (3) ▶ **continue**는 목적어로 **to**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취하며 의미상 **to do**나 **doing**이 알맞다.
- 6 해석** | 미국 여자들이 결혼할 때, 그들은 때때로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하는 데 오랜 관습을 따른다. 그 관습에 따르면 신부는 "낡은 것, 새 것, 빌린 것, 그리고 파란 것"을 입어야 한다. 여자들은 이것이 행운을 가져오는 관습이라고 믿고 있다.
- 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 ② 마실 것을 원하세요?
 - ③ 왼쪽으로 돌면 식당을 찾을 수 있다.
 - ④ 그가 노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친절한 것 같다.
 - ⑤ 아버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운동을 하신다.
- ▶ **to bring**은 앞의 **custom**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②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①은 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③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④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⑤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Grammar Writing

p.40

- 1** (1)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usic.
 (2) The farmer didn't know what to do.
 (3) She makes it a rule to get up early.
 - 2** (1) I make it a rule to go to bed at nine every evening.
 (2) It was wise of him to listen to old people.
 (3) He was never to see his children again.
 - 3** (1) is rich enough to buy a new car
 (2) is too heavy for me to hold in my arms
 (3) went to a flower shop to buy some flowers
 - 4** (1) Where is the best place to hide a jar of honey?
 (2) There is nothing for us to choose.
 (3) The river is dangerous to swim in.
 (4) I prefer to work late in the evening.
 - 5** (1) He was so kind that he could help me.
 (2) I want something to wear.
 (3)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omen.
 (4) He is strong enough to carry the box.
 - 6** (1) only to fail (2) how to swim (3) to prepare for the future
 (4) to tell a lie to his father
 - 7** (1) I'm glad to meet you.
 (2) You seem to be relaxed.
 (3) Please give me a chair to sit on.
 (4)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
- 1** (1) ▶ **it**이 있으므로 **it**을 가주어로 하고, **to** 이하를 형용사 뒤에 둔다.
 (2) ▶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을 활용한다.
 (3) ▶ **it**이 있으므로 가목적어로 쓴다.
 - 2** (1) 나는 매일 저녁 9시에 자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다.
 ▶ 가목적어 **it**이 필요하다
 (2)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경청하다니 그는 현명했다.
 ▶ 서술어로 쓰인 형용사가 **wise**이므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of** + 목적격」으로 쓴다.
 (3) 그는 다시는 아이들을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 **be to** 용법 중 '운명'에 해당하는데, **to**부정사의 부정은 **to** 앞에 부정어를 쓴다.
 - 3** (1) 그는 매우 부자이다. 그는 새 차를 살 수 있다.
 ▶ 「형용사/부사 + **enough** + **to**부정사」 구문을 활용한다.
 (2) 아기가 너무 무겁다. 난 그 아기를 팔에 안을 수가 없다.
 ▶ 「**too** + 형용사/부사 + **to**부정사」 구문을 활용한다.
 (3) 그녀는 꽃집에 갔다. 그녀는 꽃을 좀 사길 원했다.
 ▶ 꽃을 사러 꽃집에 갔으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를 이용한다.

- 4 (1) 풀단지를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야?
▶ 「명사+to부정사」 구조의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한다.
- (2)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 「nothing+to부정사」 구조의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하며, 의미상 주어는 to 앞에 온다.
- (3) 그 강은 수영하기에 위험하다.
▶ 「형용사/부사+to부정사」 구조의 to부정사가 앞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 (4) 나는 저녁 늦게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 「prefer+to부정사」 구문을 활용한다. prefer to ~하는 것을 더 좋아하다
- 5 (1) 그는 나를 도울 만큼 친했다.
▶ 「so+형용사/부사+that+주어+동사」 형태로 쓴다.
- (2) 나는 입을 것을 원한다.
▶ 「명사+to부정사」 형태의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를 활용한다.
- (3) 여자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 to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 주어 it을 문장 맨 앞에 두고 진주어 to부정사를 문장 맨 뒤로 보낸다.
- (4) 그는 힘이 매우 세서 그 상자를 옮길 수 있다.
▶ 「형용사+enough+to부정사」 구문을 활용한다.
- 6 (1) 그는 열심히 일했으나 실패했다.
▶ 「only+to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 '결과'를 의미한다.
- (2) 너는 수영하는 법을 잊었니?
▶ 「의문사+to부정사」는 명사구이므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 (3)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요구하신다.
▶ 「ask+목적어+to부정사」 구문을 이용한다.
- (4) 그는 너무 정직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 too ~ to ...구문을 활용한다.
- 7 (1) ▶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to부정사를 써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 (2) ▶ 「seem+to부정사」 구문을 활용한다.
- (3) ▶ 「명사+to부정사+전치사」 구문을 활용한다.
- (4) ▶ to부정사가 be동사의 보어 역할을 한다.

Actual Test

p.42

1 ④ 2 ① 3 ② 4 ⑤ 5 ③, ⑤ 6 ③ 7 ① 8 ③
 9 ④ 10 to be 11 surprised to smell 12 ③ 13 ②
 14 ① 15 ② 16 ⑤ 17 ②

1 나는 매주 주말에 등산을 가고 싶어.

- ① 내 사촌은 어제 우리 집에 왔다.
 ② 문 옆에 꽃병이 하나 있다.
 ③ 그와 그녀는 같은 학원에 다녀.
 ④ 나는 그 유니폼을 입으니 기분이 좋아.
 ⑤ 우리는 가정에서 모든 것을 재사용해야 해.
 ▶ 보기의 to climb은 hope의 목적으로 쓰인 to부정사이다. to부정사로 쓰인 것은 ④이다.
- 2 A: 넌 장래 희망 직업이 뭐야?
 B: 나는 댄서가 되고 싶어. 너는?
 A: 음... 나는 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어.
 ▶ 첫 빈칸에는 is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므로 to부정사나 동명사 형태가 알맞고, 두 번째 빈칸에는 want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므로 공통적으로 to부정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 3 • 직업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 그들은 그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 첫 빈칸에는 주어, 두 번째 빈칸에는 가목적어가 필요하다. 주어, 가목적어로 동시에 쓰이는 것은 it이다.
- 4 ① 그를 만나러 거기로 가자.
 ② 그는 과학자가 되길 바란다.
 ③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④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왜 일찍 일어나지 않았니?
 ⑤ 그녀는 친구들을 도울 것이다
 ▶ 나머지는 to부정사의 쓰임이나, ⑤는 be going to에 쓰인 것이다.
- 5 ① 너는 피아노 치는 것을 즐기니?
 ② 너는 수업 중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③ 나는 레인과 영화를 보길 기대하고 있어.
 ④ 나는 어제 낚시하러 갈 거야.
 ⑤ 그 탑은 2012년에 세워질 거야.
 ▶ ①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to play → playing.
 ② listen은 뒤에 전치사 to가 함께 쓰여야 한다. listen → listen to
 ④ be going to는 미래를 나타내는 구문이므로 yesterday와 함께 쓸 수 없다.
- 6 ▶ '~할 만큼 ...한'의 의미인 「형용사+enough+to부정사」 구문을 활용한다.
- 7 ▶ 주어 it을 활용한다.
- 8 그녀는 자라서 유명해졌다.
 ① 나는 신을 신발이 많이 있다.
 ② 그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노력했다.
 ③ 그녀의 할아버지는 90세까지 사셨다.
 ④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나를 보러 왔다.
 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 보기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로 쓰였다.
 ① 형용사적 용법, ② '목적'의 부사적 용법, ④ '목적'의 부사적 용법, ⑤ 명사적 용법
- 9 ① 그녀는 신문 기사를 읽고 슬펐다.
 ② 그들은 선물을 받아서 기뻐다.
 ③ 그는 오늘 너로부터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④ 나는 다음 달에 다시 너를 보기를 바라.
 ⑤ 내 딸은 원숭이를 보고 놀랐다.

▶ 나머지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지만, ④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10 그는 성장해서 감독이 되었다.

▶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를 활용한다.

11 요리사는 그 음식의 냄새를 맡아 보고 놀랐다.

▶ 「감정의 형용사+to부정사」구문을 활용한다.

12 A: 우리 클럽에 기부해 줘.

B: 왜?

A: 아, 내가 네게 말하는 걸 잊었구나. 우리 학교 야구 팀을 위해서야.

▶ '~하는 것을 잇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to부정사 형태가 알맞다.

13 나는 네가 그와 결혼하길 바라.

▶ expect는 that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3형식으로도 쓰이고, 「expect+목적어+to부정사」의 5형식으로도 쓰인다.

14 A: 취미가 뭐니?

B: 내 취미는 농구하는(웹서핑하는 / 동전 모으는 / 책 읽는 / 모형 비행기 만드는) 거야.

▶ 취미가 무엇인지 말하는 구조로 be동사 뒤에 to부정사를 사용해 보어를 나타낸다. 주어인 문장에 to가 있으므로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15 ①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충격 받았어.

② 나는 너무 피곤해서 걸을 수가 없었어.

③ 그는 그렇게 말할 만큼 친절했어.

④ 아이들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아.

⑤ 그녀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건 쉬워.

▶ ②의 '나는 너무 피곤했지만 걸었다.'는 문장과 too ~ to ... '너무~해서 ...할 수 없다'는 구문은 같은 뜻이 될 수 없다.

16 • 함께 노래 부르는 게 어때?

• 엄마는 인터넷 사용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아셨어.

▶ 첫 빈칸에는 뒤에 동사원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to가 들어가야 하고(try to ~하려고 애쓰다), 두 번째 빈칸에는 가주어 역할을 하는 it이 들어가야 한다.

17 ▶ 뒤에 to부정사가 왔으므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들어갈 수 없다.



Chapter 03

동명사

Unit 1 동명사의 역할

p.47

Check Up

1 (1) Walking (2) reading (3) selling (4) not pleasing

2 (1) to be → being (2) give → giving / to give
(3) watch → watching (4) Learn → Learning / To learn

3 (1) I usually go to bed after writing in my diary.

(2) Doing/To do nothing is bad.

(3) Her hobby is surfing/to surf the Internet.

4 ④ 5 ②

1 (1) 걷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이다.

▶ 동사가 문장의 주어라 되기 위해서는 동명사 또는 to부정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그녀는 어제 그 소설 읽는 것을 끝마쳤다.

▶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3) 그의 시간제 일은 아동복을 파는 것이다.

▶ 동사가 보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동명사 또는 to부정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4) 너를 즐겁게 해 주지 못해 미안해.

▶ 동명사의 부정은 to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동명사 앞에 부정어 not/never를 쓴다.

2 (1) 그는 만화가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 give up은 목적으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다.

(2) 나의 일은 사람들에게 관광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다.

▶ 동사가 보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동명사 또는 to부정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3) 당신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 전치사 뒤에는 명사(구)가 오므로 동명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4) 바이올린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것 같다.

▶ 동사가 문장의 주어라 되기 위해서는 동명사 또는 to부정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3 (1) ▶ 전치사 after 뒤에 와야 하므로 write를 동명사 형태로 고쳐 after 뒤에 넣는다.

(2) ▶ 목적어를 취해야 하며, 문장의 주어라 되어야 하므로 Doing nothing 또는 To do nothing으로 쓴다.

(3) ▶ 동사가 보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동명사 또는 to부정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4 그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 of 다음에는 명사(구)가 와야 하므로 동명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5 오래된 동전을 모으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의 하나이다.

▶ 동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명사 또는 to부정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Unit 2 동명사와 현재분사/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와 태 p.49

Check Up

1 (1) crying (2) my (3) waving (4) not being allowed

2 play → playing 3 ③

4 (1) 동명사 (2) 현재분사 (3) 현재분사 (4) 동명사

- 5 (1) laughed at my failing the test
(2) both of us taking a walk in the park

- 6 (1) Are you sure of him/his passing the test?
(2) We are pleased with you/your being with us.

- 1 (1) 저쪽에서 울고 있는 여자는 누구니?
▶ 형용사처럼 명사인 the woman을 수식하며, '~하는'의 의미로 쓰려면 현재분사가 되어야 한다.
- (2) 나의 엄마는 내가 과학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신다.
▶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기 위해서는 동명사 형태가 되어야 하고, 문장의 주어 이외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 경우 동명사 바로 앞에 명사의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쓴다.
- (3) 한 아기가 두 손을 흔들며 엄마에게 왔다.
▶ 아기가 엄마를 향해 올 때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로 쓰이는 것은 현재분사 waving이다.
- (4) 그는 그 일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났다.
▶ 동명사의 수동태는 「being + p.p.」의 형태이다. 허락을 받는 것이므로 수동태 형태의 동명사가 되어야 한다.
- 2 당신은 내가 여기서 추구하는 것이 싫으세요?
▶ min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play를 playing으로 고친다. 앞의 my는 playing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 3 그녀는 아이가 혼자 집에 남겨진 것을 보고 놀랐다.
▶ 전치사 뒤에 동사가 와야 하는 상황이고, 문맥으로 보아 '남겨지는' 상황이므로 수동형 동명사인 being left가 되어야 한다. a child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 4 (1) 그녀는 늦어서 미안해했다.
▶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2) 사람들은 그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 현재진행형시제를 이루고 있다.
- (3) 나는 곧 너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현재진행형시제를 이루고 있다.
- (4) 나는 네가 그 시험에 붙으리라 확신한다.
▶ of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5 (1) ▶ laugh at이 동사구이고, 목적어가 failing이 된다. my는 failing의 의미상 주어이다.
- (2) ▶ 전치사 about 뒤에 '산책하다'라는 의미의 take a walk가 와야 하므로 동명사 taking으로 만든다. both of us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 6 (1) 너는 그가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하니?
▶ passing의 의미상 주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바로 앞에 써 준다.
- (2)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 기쁩니다.
▶ being의 의미상 주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바로 앞에 써 준다.

Unit 3 동명사 목적어 / to부정사 목적어

p.51

Check Up

- 1 (1) meeting (2) speaking (3) turning (4) swimming
- 2 (1) climbing (2) visiting (3) to feel
- 3 (1) doing (2) drinking
- 4 (1) to prepare → preparing (2) to draw → drawing
- 5 (1) stopped working and went to sleep
(2) should remember to call me tomorrow
(3) had better try to get along with your classmates
- 1 (1) 당신은 지난 학기에 날 만난 것을 기억하십니까?
▶ remember는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되 동명사를 받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to부정사를 취하면 앞으로 할 일을 언급한다. 여기서는 과거의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2) 그는 낯선 사람과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
▶ to는 전치사이므로 동명사가 알맞다.
- (3) 불을 켜 주시겠습니까?
▶ min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 (4) 우리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 2 (1) ▶ 빈칸 뒤에 the mountain이 있으므로 climb을 선택하며, 전치사 from의 목적어이므로 동명사의 형태가 알맞다.
- (2) ▶ 내용상 visit가 알맞고 worth 뒤에는 동명사 형태가 와야 한다. be worth -ing ~할 가치가 있다
- (3) ▶ 빈칸 뒤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으므로 feel을 선택하고, '~하려고 애쓰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try 뒤에 to부정사가 와야 한다.
- 3 (1) 그는 숙제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 put off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 (2) 콜라를 마시고 싶니?
▶ feel like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야 한다.
- 4 (1) 당신은 회의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 be busy -ing이므로 to prepare를 preparing으로 고친다.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 (2) 그는 그림을 그리는 데 30분을 썼다.
▶ 「spend + 시간/돈 + -ing」이므로 to draw를 동명사 drawing으로 고친다.
- 5 (1) ▶ stop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면 '~하던 것을 멈추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뒤에 to부정사가 오면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 멈추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 (2) ▶ remember는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되, 동명사를 받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to부정사를 취하면 앞으로 할 일을 언급한다. 여기서는 미래의 일에 대해

언급하므로 to부정사가 알맞다.

(3) ▶ try는 뒤에 to부정사가 오면 '~하려고 애쓰다'의 의미이다.

Practice Test

p.52

- 1 (1) ② (2) ④ (3) ①
- 2 (1) ① (2) ① 3 ④ 4 ②
- 5 (1) smoking (2) to sleep (3) turning 6 ③
- 7 (1) improving (2) inventing (3) not, writing 8 ③
- 9 (1) Making / To make (2) living (3) discovering (4) meeting
- 10 ①

- 1 (1) 우리는 너무 많이 걸었어. 잠깐 동안 쉬기 위해 멈추는 게 어때?
▶ sto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하던 것을 멈추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뒤에 to부정사가 오면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 멈추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많이 걸었으므로 '쉬기 위해' 멈추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to부정사가 알맞다.
- (2) 부부는 작년에 큰 크리스마스트리를 샀던 것을 기억한다.
▶ 과거의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명사가 알맞다.
- (3) 고용주는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 주기를 거절했다.
▶ refus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 2 (1) 나는 기타 치는 것을 배우지 않은 것을 정말 후회한다. 학교 다닐 때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꽤 많이 있었다.
▶ regret은 remember, forget과 마찬가지로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되, 동명사를 받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to부정사를 취하면 앞으로 할 일을 언급하는 동사이다. 여기서는 과거에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으므로 동명사가 알맞다.
- (2) 나는 미국을 방문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자유의 여신상 옆에 섰던 일은 정말 신났다. 우리가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난 부모님께 가지 말자고 부탁했다.
▶ 과거에 했던 것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forget은 동명사 목적어를 취해야 한다.
- 3 A: 나는 너무 무서워. 그것은 귀신임에 틀림없어.
B: 공부 그만하고 쉬는 게 좋겠어.
▶ sto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하던 것을 멈추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뒤에 to부정사가 오면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 멈추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공부하던 것을 멈추어야 하므로 동명사 studying을 써야 하고, and 뒤에 오는 take는 had better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원형인 take로 써야 한다.
- 4 요리사들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느라 항상 바쁘다.
▶ 뒤에 동명사가 왔으므로 동명사를 취하는 관용 표현이 알맞다. 내용상 be busy -ing가 자연스럽다.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 5 (1) 의사는 우리 아버지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충고했다.
▶ give u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smoking

이 되어야 한다.

(2) 그는 수업 시간 동안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 '~하려고 애쓰다'의 의미이므로 to부정사가 알맞다.

(3) 불륨을 줄여도 될까요?

▶ min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6 A: 너는 인터넷에서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왜 포기했니?

B: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야.

▶ give u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chatting이 되어야 하며, have difficulty -ing는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의 뜻으로 communicating으로 써야 한다.

7 (1) 그 수업의 목적은 너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동사가 be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to부정사나 동명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스티브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 like는 목적으로 to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취할 수 있다.

(3) 그 책의 작가는 진실을 쓰지 않았다고 후회했다.

▶ regret은 remember, forget과 마찬가지로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되, 동명사를 받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to부정사를 취하면 앞으로 할 일을 언급하는 동사이다. that절의 내용이 과거이므로 동명사 writing을 써야 하고 부정을 나타내야 하므로 바로 앞에 부정어 not을 써 준다.

8 ① 나는 <Harry Potter> 시리즈를 읽고 싶었다.

② 일요일에 소풍가는 것은 재미있다.

③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해 주고 있다.

④ 자전거를 타는 것은 신난다.

▶ 나머지는 동명사로 쓰였지만, ③은 현재분사로 쓰였다. ① feel like -ing ~하고 싶다 ② 동명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 내용이 길면 to부정사와 마찬가지로 가주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현재진행형 시제에 쓰인 현재분사이다. ④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9 (1) 친구를 사귀는 것은 힘든 일이다.

▶ '친구를 사귀다'는 make friends이며, 주어가 되어야 하므로 to부정사나 동명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사람들은 대개 물이 거의 없는 땅에서 사는 것을 피한다.

▶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며 뒤에 나온 내용으로 보아 live의 동명사형 living이 알맞다.

(3) 어떤 과학자들은 공룡 뼈를 발견하길 고대하고 있다.

▶ look forward to -ing이며, 뒤에 나온 공룡 뼈로 보아 discover의 동명사형 discovering이 알맞다.

(4) 왜 사장은 자기의 직원들과 만나는 것을 미루었지?

▶ put off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며, 뒤에 이어지는 workers로 보아 meeting이 알맞다.

10 ① 사람들은 특별한 스테이크 먹는 것을 즐겼다.

② 당신은 왜 그 소녀가 나를 보고 웃는지 아시나요?

③ 당신은 언제 달려가는 고양이를 보았나요?

④ 그는 그의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서 있었다.

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남자는 내 삼촌이다.

▶ ①은 enjoy의 목적어인 동명사, ②는 be동사와 함께 쓰여 '미소를 짓고 있다'는 의미의 현재분사, ③은 고양이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④는 He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하는 현재분사, ⑤는 앞의 the man을 수식하는 현재분사이다.

Grammar in Reading

p.54

1 ③ shaking ④ speaking

2 (1) 동명사 (2) 동명사 (3) 현재분사 (4) 현재분사 3 ①, ④

4 searching 5 ②

6 (1) smoking (2) getting (3) smoking (4) smoking (5) chewing/to chew

1 **해석** | 말은 소리를 내지 않고 말을 한다. 그들은 몸짓과 표정을 통해 서로 그리고고 우리하고도 대화를 한다. 그것이 몸짓 언어(body language)이다. 사람들도 역시 몸짓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머리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음으로써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어깨를 으쓱한다.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한다. 비밀이 있을 때 웅크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많은 다른 방식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말을 한다.

▶ ① 전치사 뒤에는 명사(구)가 오므로 without 뒤에는 동명사 making이 오는 것이 맞다. ② 전치사 by 뒤에 오는 동사는 동명사 형태이어야 하므로 nodding이 오는 것이 맞다. ③ 접속사 or 뒤에 오는 것은 앞의 nodding과 같은 자격이 되어야 하므로 shaking이 되어야 한다. ④ 전치사 without 뒤에 오는 동사는 동명사 형태이어야 하므로 speaking이 되어야 한다.

2 **해석** | 숨바꼭질 놀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어떤 동물들도 역시 숨는 놀이를 좋아한다. 적에 의해 먹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대벌레는 길고 가늘며 갈색이다. 그것은 막대기처럼 보인다. 그것은 밤에 나뭇잎을 먹는다. 낮 동안 그것은 나무의 일부분처럼 보임으로써 몸을 숨긴다. 그것은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다. 때때로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인다. 먹이를 찾는 새들은 대벌레를 나뭇가지로 생각한다. 대벌레가 위험에 처하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다. 그것은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보인다. 이 대벌레를 찾아보지 않겠는가?

(1) ▶ playing은 like의 목적어이므로 동명사이다.

(2) ▶ looking은 전치사 by 뒤에 오므로 동명사이다.

(3) ▶ moving은 be동사와 같이 쓰여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현재분사이다.

(4) ▶ looking은 앞의 명사인 bird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이다.

3 **해석** | 화석을 얻는 일은 대개 밖에서 이루어진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과학자들은 외부와 내부 양쪽에서 일한다. 그 현장의 박물관에는 특이한 방이 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동물들의 화석을 조사한다. 다른 방에서는 방문객들이 과학자들이 뼈를 닦는 것을 볼 수 있다.

▶ hunt가 주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동명사나 to부정사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see는 직각동사이므로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가 올 수 있다.

4 **해석** |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 캘리포

니아로 몰려들었다. 그 여행은 6개월이나 걸렸다. 그것은 길고 어렵고 위험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남아메리카를 돌아 항해를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타거나 걸어서 미국을 가로질러 2,000마일을 여행했다. 처음에는 금이 많았다. 광부들은 쉽게 금을 찾았다. 그러나 1850년 즈음에 금은 거의 바닥이 났다. 금을 찾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찾는 것을 그만두었다.

▶ 금 찾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이므로 stop 뒤에 동명사의 형태가 알맞다.

5 **해석** | 당신은 오래된 영화를 보는가? 아마 Carole Lombard가 출연한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녀는 1930년대의 유명한 여배우였다. 1921년 그녀는 집 근처의 거리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다. 한 영화감독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영화에 출연시킬 결심을 하였다. 1925년 영화 제작사인 20세기사와 계약을 한 후 그녀는 몇몇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18세에 그녀는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는 그녀의 얼굴에 상처를 남겼다. 제작사는 그녀와의 계약을 끝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고 계속 영화를 찍었다.

▶ ① be동사와 함께 과거진행형을 만드는 현재분사이다. ②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이므로 to put으로 고쳐야 한다. ③ 전치사 after 뒤에 왔으므로 동명사이다. ④ keep on -ing(계속 ~하다)는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다.

6 **해석** | A: 있잖아요, 나 정말 담배 끊어야겠어요. 하루에 두 갑 피워요. B: 그래요, 값도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내가 담배를 끊으면 한 달에 약 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A: 하지만 문제는 내가 담배를 끊으면 난 아마 살이 찌게 될 거라는 거죠.

B: 어. 내가 끊으면 난 다시 손톱을 씹어떨지도 몰라요.

A: 음. 내 생각에 난 금연법이 통과되면 담배를 끊을 것 같아요.

B: 나도 그래요.

(1) ▶ give u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smoke는 smoking이 되어야 한다.

(2) ▶ get은 be동사와 함께 '~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분사 getting이 되어야 한다.

(3) ▶ smoke는 gave up의 목적어가 되어야 하므로 smoking이 되어야 한다.

(4) ▶ stop의 목적어가 되어야 하므로 smoking이 되어야 한다.

(5) ▶ chew는 동사 start의 목적어가 되어야 하므로 to chew 또는 chewing이 되어야 한다.

Grammar in Writing

p.56

- (1) are used to taking care of the patients
(2) spend too much time surfing the Internet
(3) On arriving in India, they were surprised


- (1) It is no use telling him to be quiet.
(2) I want to make my English better by learning pop songs.
(3) She was silent for a while after hearing the news.

- 3** (1) I am afraid of you being angry.
 (2) He finished reading the book yesterday.
 (3)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with me?
- 4** (1) I regret having spent all the money.
 (2) The movie is worth watching.
 (3) I couldn't help asking a favor of him.
- 5** (1) arriving at the airport (2) meeting him
 (3) no, denying (4) from, going
 (5) his/him coming back home
- 6** (1) repairing the car (2) walking her dog
 (3) my opening the curtain
 (4) a lot of time talking on the phone
- 7** (1) try to avoid crossing the dangerous road
 (2) used to helping my mother every day
 (3) to lend some books to me tomorrow

- 1** (1) ▶ be used to -ing 구문이므로 바로 뒤에 올 take는 taking이 되어야 한다.
 (2) ▶ 「spend + 시간/돈 + -ing」 구문이므로 surf를 surfing으로 고친다.
 (3) ▶ on -ing 구문이므로 arrive를 arriving으로 고친다.
- 2** (1)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 It is no use -ing이므로 to tell을 telling으로 고친다.
 (2) 나는 팝송을 배워서 내 영어 실력을 더 좋게 하고 싶다.
 ▶ 전치사 by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오므로 to learn을 learning으로 고친다.
 (3) 그녀는 그 소식을 들은 후 잠시 동안 말없이 있었다.
 ▶ after가 전치사로 쓰였으므로 뒤에 오는 hear는 동명사 hearing으로 고친다.
- 3** (1) 나는 네가 화날 것이 걱정된다.
 ▶ be afraid of ~를 활용해야 하므로 전치사 of 뒤에는 동명사 being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you는 동명사 바로 앞에 쓴다.
 (2) 그는 어제 그 책 읽기를 끝냈다.
 ▶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므로 reading을 선택하여 문장을 만든다.
 (3) 나와 함께 영화 보러 가는 것이 어때?
 ▶ How about -ing이므로 동명사 going을 선택한다. '영화 보러 가다'라는 의미는 go to the movies이다.
- 4** (1) ▶ 과거의 일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낼 때는 regret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온다.
 (2) ▶ be worth 다음에는 동명사가 온다.
 (3) ▶ cannot help 다음에는 동명사가 온다.
- 5** (1)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화장실로 갔다.
 ▶ as soon as + 주어 + 동사 = on -ing ~하자마자
 (2) 내가 전에 그를 만난 것을 기억한다.

▶ remember는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되, 동명사를 받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to부정사를 취하면 앞으로 할 일을 언급한다. 여기서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므로 동명사가 알맞다.

- (3) 그가 돈을 훔친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It is impossible to ~ = There is no -ing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 그들은 비 때문에 소풍을 갈 수 없었다.
 ▶ keep/stop/prevent/prohibit + 목적어 + from -ing ~가 ...하는 것을 막다
- (5) 나는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 전치사 뒤에 오는 동사 형태는 동명사이므로 come을 coming으로 만들고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앞에 소유격/목적격을 붙여 준다.
- 6** (1) 차를 수리해 봐야 소용없다. 그것은 너무 오래되었다.
 ▶ 뒤에 '너무 오래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자동차를 수리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가장 자연스럽다.
 (2) 나는 그녀가 개를 운동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일과이다.
 ▶ 그녀의 '일과'로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내용은 개를 운동시키는 것이다.
 (3) 커튼을 열어도 될까요? 싫으시다면, 열지 않겠습니다.
 ▶ Do you mind -ing ~?는 '~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이므로 '커튼을 연다'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4) 그녀는 전화로 얘기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쓴다. 그녀는 항상 할 말이 많다.
 ▶ 「spend + 시간/돈 + -ing」이고, 뒤의 내용이 할 말이 많다고 했으므로 전화로 많은 시간 동안 말한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7** (1) ▶ try + to부정사와 avoid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임에 주의하여 문장을 만든다.
 (2) ▶ be used to -ing 구문을 활용한다.
 (3) ▶ '~할 것을 기억하다'의 의미이므로 to부정사가 와야 한다.



Actual Test

p.58

1 ④ **2** ⑤ **3** ② **4** ③ **5** ② **6** ③ **7** ④ **8** ②
9 ⑤ **10** ②, ③
11 finishing, eating, joking, laughing
12 ③, ④ **13** Writing **14** his/him, getting **15** ⑤
16 ③ **17** ④ **18** to take → taking **19** going → to go
20 taken → taking

- 1** ①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②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③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다.

④ 그들은 야구 경기를 보고 있다.

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탁구 치는 것이다.

▶ ①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②는 lik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③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④는 be동사와 함께 현재진행형을 만들어 '~을 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분사, ⑤는 보어 역할을 하여 '~하기, ~하는 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명사이다.

2 ① 단 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② 그녀가 그 뉴스를 듣고 울어서 미안해.

③ 그것은 도시에 새 타워를 건설하려는 것에 관한 것이다.

④ 그는 시간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니?

▶ ①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②는 전치사 for의 뒤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③은 전치사 about 뒤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④는 stop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⑤는 feel의 목적격보어로 쓰인 현재분사이다.

3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① 그는 때때로 잠자는 사자와 같다.

② 나는 인형 옷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③ 그는 그때 나와 낚시를 하고 있었다.

④ 거리에서 싸우는 개들을 보라!

⑤ 한 어머니가 자고 있는 자신의 아기를 보고 웃고 있다.

▶ 보기는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①, ④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②는 전치사 of 뒤에 오는 동명사, ③, ⑤는 be동사와 함께 쓰여서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분사이다.

4 그들은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① 나는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

② 그의 희망은 새 직업을 찾는 것이다.

③ 그들은 첫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④ 테니스 치는 것은 건강에 좋다.

⑤ 그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 보기는 be동사와 함께 쓰여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분사, ③은 be동사와 함께 쓰여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분사, 나머지는 동명사이다.

5 ▶ cannot help -ing 구문을 활용한다. cannot help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6 ▶ look forward to -ing 구문을 활용한다. look forward to -ing ~을 학수고대하다

7 대진이는 새 친구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즐겼다.

▶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8 A: 이게 뭐니?

B: 아, 그거 Magical Finder야.

A: 아, 뒤에 쓰는 건데?

B: 물건을 찾는 데 쓰는 거야.

▶ 전치사 for 뒤에 오므로 동명사 finding이 와야 한다.

9 TV를 켜 주시겠습니까?

▶ 뒤에 동명사가 있으므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알맞다. min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Would you mind ~?는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으로 '~해 주시겠

습니까?'라는 의미이다.

10 아버지는 내가 집에 늦게 오는 것을 싫어하신다.

▶ min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동명사 com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목적격이 와야 하므로 my/me를 동명사 앞에 쓴다.

11 먹는 것을 끝마친 후 그녀는 농담을 하고 웃으며 또 한 시간을 보냈다.

▶ 전치사 after 뒤에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finishing이 되어야 하고,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eating이 되어야 한다. 「spend + 시간/돈 + -ing」이므로 joking, 그리고 병렬 관계를 이루는 laughing이 와야 한다.

12 나는 저녁 식사 후 여동생과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준다.

▶ like는 동명사나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므로 to listen 또는 listening이 알맞고, 접속사 or로 연결된 동사 watch는 동사 like에 연결되므로 역시 like의 목적어이므로 to watch 또는 watching으로 써야 한다. 단, 어떤 형태를 취하든 둘은 같은 형태로 맞춰야 한다.

13 영어로 편지를 쓰는 것은 어렵다.

▶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는 동명사로도 나타낼 수 있다.

14 나는 그가 해답을 갖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전치사 of 다음에 오므로 동명사 형태가 되어야 하고,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므로 소유격, 목적격의 형태로 동명사 앞에 나타낸다.

15 ① 그들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언제?

② 그 마을은 관광객으로서 방문할 가치가 있다.

③ 하나 더 해 줄 수 있겠어요?

④ 우리는 영화 보는 것을 즐겼다.

⑤ 나가고 싶니?

▶ ① How about 뒤에는 동명사 visiting이 와야 한다. ② be worth -ing는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이다. ③ min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doing이 와야 한다. ④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watching이 와야 한다. ⑤ feel like -ing는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다.

16 ① 나는 내일 너를 만날 것을 잊지 않았다.

② 나는 운동 후에 샤워하기로 했다.

③ 그는 친구를 때린 것을 부인했다.

④ 초대를 받지 않아서 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지?

▶ ① tomorrow가 있으므로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잊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므로 to meet이 되어야 한다. ②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to take가 되어야 한다. ③ den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올바른 문장이다. ④ without이 전치사이므로 동명사 형태가 되어야 하며, 수동형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be를 being으로 고쳐야 한다. ⑤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to draw로 써야 한다.

17 ▶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왔으므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알맞다. expect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18 그녀는 그녀의 모든 삶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썼다.

▶ 「spend + 시간/돈 + -ing」이므로 to take를 taking으로 고쳐야 한다.

19 우리는 내년에 외국으로 나갈 계획을 세웠다.

▶ plan은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going을 to로 고쳐야 한다.

20 나는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다.

▶ be interested in -ing 구문이므로 taken을 taking으로 고쳐야 한다.



Chapter 04

분사

Unit 1 현재분사

p.63

Check Up

1 (1) sleeping (2) boring (3) drawing (4) hopping (5) touching

2 (1) stands → standing (2) naming → named
(3) fascinated → fascinating (4) to sleep → sleep/sleeping

3 (1) Her dog is barking at a stranger.
(2) I heard the shocking news.
(3) I found him studying in his room.

4 ② 5 ②

- 1 (1) 요람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보라.
▶ 앞의 명사 the baby를 수식하며 '~하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sleeping이다.
- (2) 나는 이 영화를 참을 수 없어. 그것은 너무 지루해.
▶ '지루한 기분을 주는'이라는 의미이므로 현재분사 boring이 알맞다.
- (3) 그들은 만화를 그리고 있다.
▶ be동사와 함께 현재진행형 의미를 가져야 하므로 현재분사가 알맞다.
- (4) 나는 몇몇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강종강종 뛰는 것을 보았다.
▶ '지각동사+목적어+현재분사'이므로 hopping이 알맞다.
- (5) <마지막 황제>에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다.
▶ '감동을 주는'이라는 의미로는 현재분사 touching을 쓴다.
- 2 (1) 너는 문에 서 있는 여자를 아니?
▶ 앞의 명사인 the woman을 수식하며 '~하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현재분사이므로 stands를 standing으로 고친다.
- (2) 기방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어제 너를 만나러 왔다.
▶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라는 의미는 과거분사 named를 쓴다.
- (3) <전쟁과 평화>는 매력적인 책이다.
▶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이라는 의미가 되려면 현재분사인 fascinating이 되어야 한다.
- (4) 나는 때때로 학생들이 버스에서 자는 것을 본다.
▶ 지각동사인 see가 쓰인 문장에서는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나

원형부정사를 쓰므로 sleep을 sleeping이나 sleep으로 고친다.

- 3 (1) ▶ bark는 be동사인 is와 함께 쓰여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하므로 barking으로 고쳐 is 다음에 쓴다.
- (2) ▶ '충격적인'의 의미가 되려면 현재분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현재분사가 명사 바로 앞에서 수식하는 형태가 된다.
- (3) ▶ 목적어인 him이 공부를 해야 하므로 목적어 him 뒤에서 목적격보어 형태인 studying이 되어야 한다.
- 4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줄곧 뛰어 왔다.
▶ 주어인 I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로 능동적 상황이므로 현재분사인 running이 되어야 한다.
- 5 나는 창밖을 내다보는 그 여자를 안다.
▶ 명사인 the woman을 수식하며 '~하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현재분사이므로 looking이 되어야 한다.

Unit 2 과거분사

p.65

Check Up

1 (1) interested (2) named (3) made

2 (1) understand → understood (2) carried → carrying/carry

3 (1) ③ (2) ③

4 (1) She heard her name called.
(2) He is a talented director.

5 (1) written in Russian was difficult to read
(2) folded nicely is my sister's

- 1 (1) 너는 어떤 종류의 영화에 관심이 있니?
▶ be interested in 구문이므로 과거분사가 알맞다.
- (2) 나는 리버라는 이름의 금봉어를 기른다.
▶ '~라는, ~라고 불리는데'의 의미는 named로 나타낸다.
- (3) 그는 생일에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를 원한다.
▶ '만들어진'의 의미가 되어 앞의 명사 watch를 수식해야 하므로 made가 되어야 한다.
- 2 (1) 나는 불어로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다.
▶ make oneself understood는 '자신을 이해시키다'의 의미이므로 understand를 과거분사 understood로 고친다.
- (2) 그들은 왕자가 아름다운 보석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 '지각동사+목적어+현재분사/원형부정사'이므로 carried를 carrying이나 carry로 고친다.
- 3 (1) 아버지는 중고차를 사기로 결심했다.
▶ '사용된'의 의미를 갖는 것은 과거분사 used이다.
- (2) 나는 모든 논쟁에 넌더리가 났다.
▶ '몰린, 지겨운'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과거분사 tired가 알맞다.
- 4 (1) ▶ '지각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 구문이며, 이름은 '불리어'지므로 과거분사로 고쳐 her name 뒤에 쓴다.

(2) ▶ '재능 있는'은 과거분사 형태로 쓰인다. 명사 **director**를 수식하므로 바로 앞에 온다.

5 (1) ▶ 책이 러시아어로 쓰여진 것이므로 **write**는 과거분사 형태로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2) ▶ **fold**가 주어인 **the pants**를 수식하여 '접힌'의 의미가 되려면 과거분사인 **folded**가 되어야 한다.

Unit 3 분사구문

p.67

Check Up

1 (1) cooking (2) Reading (3) Being tired (4) Seen

2 (1) Walking (2) Seeing (3) listening (4) Being

3 (1) ①, ③ (2) ②, ③

4 (1) A child came to the actor, asking her an interesting question.

(2) Feeling lonely, I eat some cake or sweets.

(3) Being late, I couldn't attend the meeting.

5 Not knowing her, I couldn't say a word.

1 (1) 엄마는 요리를 하는 동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신다.

▶ 분사구문 형태이므로 현재분사 형태가 알맞다. 분사구문에서 주절과의 의미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접속사를 없애지 않고 남겨 두기도 한다.

(2) 시를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나의 느낌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3) 힘든 일을 끝내고 피곤해서 그녀는 일찍 자러 갔다.

▶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4) 집들은 하늘에서 보면 작은 상자처럼 보인다.

▶ 집들이 '보여지는데'가므로 과거분사의 형태가 알맞다. 과거분사 **seen**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이다.

2 (1) 빨리 걸어가면 첫 기차를 탈 수 있어.

▶ 조건의 분사구문이다.

(2) 경찰을 보자마자 그 도둑은 달아났다.

▶ 때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3) 나는 음악을 들으며 숙제를 했다.

▶ 동시 동작의 분사구문이다.

(4) 어리지만 그는 용감했다.

▶ 양보의 분사구문이다.

3 (1) 여기에 살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을 잘 안다.

▶ 주절과의 관계로 보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를 사용한 **Because I live**나 접속사 의미를 포함하여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분사구문이므로 **Living**이 알맞다.

(2) 네가 말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해.

▶ 주절과의 관계로 보아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Even**

though를 사용한 문장을 쓰거나, 그러한 의미의 접속사를 포함한 분사구문이 알맞다.

4 (1) 한 아이가 그 배우에게 가더니 재미있는 질문을 했다.

▶ 접속사 **and**를 생략하고 동사원형 **ask**에 **-ing**를 붙여 분사구문을 만든다. 여기서는 부대 상황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2)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케이크나 사탕을 먹는다.

▶ 접속사를 없애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므로 주어의 없애기 후, 동사 **feel**을 **feeling**으로 고친다.

(3) 늦었기 때문에 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 접속사를 없애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므로 주어의 없애기 후 **was**를 **being**으로 고친다.

5 ▶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부분은 그녀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분사구문의 부정을 만든다.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never**를 쓴다.

Practice Test

p.68

1 (1) ② (2) ④ (3) ③

2 (1) breaking → broken (2) naming → named

3 ① 4 ③ 5 ④

6 (1) Taking a walk, she always takes a bottle of water.

(2) (Being) Tired, they couldn't move even a step.

(3) Knowing the answer, he didn't answer the question.

7 ② 8 (1) Entering (2) knowing (3) surprised, flying

9 (1) Turning (2) exciting (3) bored 10 ⑤

1 (1) 사람들은 베품시장에서 중고 물건들을 산다.

▶ '사용된'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과거분사이다.

(2) 천천히 걸으면 학교에 늦을 거야.

▶ 조건의 분사구문이다.

(3) 우리는 모두 그 꽃병이 도난당한 것을 보고 놀랐다.

▶ **find**의 목적격보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능동'의 의미일 경우 현재분사, '수동'의 의미일 경우 과거분사이다. 여기서는 꽃병이 '도난당한' 것이므로 **stolen**이 알맞다.

2 (1) 소녀들은 깨진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별들을 보았다.

▶ '깨진' 창문이 아니고 '깨진' 창문이 되어야 하므로 수동적 의미를 갖는 **broken**이 되어야 한다.

(2) 마준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 '~라고 불리우는, ~라는데'의 의미는 **named**이다.

3 ▶ 그녀를 기다리는 것과 음악을 듣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이끄는 **listening**이 알맞다.

- 4 ▶ 중국어로 쓰여졌으므로 수동형 Written이 알맞다. 앞에 being이 생략되었다.
- 5 공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이 닫힌 것을 알았다.
▶ 접속사 의미를 포함하며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분사구문이므로 Arriving이 맞고, 그 공원의 문은 닫힌 것이므로 과거분사 closed로 써야 한다.
- 6 (1) 그녀가 산책을 할 때 그녀는 항상 물 한 병을 가지고 간다.
▶ 접속사와 주어를 없애고 동사원형에 -ing를 붙인다.
- (2) 그들은 피곤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 접속사와 주어를 없애고 동사원형에 -ing를 붙인다.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 (3)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접속사와 주어를 없애고 동사원형에 -ing를 붙인다.
- 7 ① 우는 여동생이 안쓰러워.
②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
③ 그 CEO는 그의 솜구치는 화를 조절하려고 애를 썼다.
④ 자라는 식물들은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 나머지는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이고, ②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이다.
- 8 (1)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그가 TV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방과 관련된 단어로는 enter가 알맞고, 주절과의 내용으로 보아 접속사 의미를 포함하는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것이 알맞다.
-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 내용상 '몰랐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know를 이용한 분사구문의 형태가 알맞다.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never를 쓴다.
- (3) 우리는 모두 그가 날아가는 새를 잡았을 때 놀랐다.
▶ 우리가 '놀란' 것이므로 과거분사가 알맞고 명사 앞에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며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현재분사이므로 flying이 알맞다.
- 9 (1) 오른쪽으로 돌면 경찰서를 볼 수 있을 거야.
▶ 주어인 동사를 현재분사로 고쳐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 (2) 나는 그 경기가 정말 흥미진진함을 알게 되었다.
▶ 경기가 흥미진진한 것이므로 현재분사 형태의 보어가 되어야 한다.
- (3) 그녀는 그녀의 일상생활에 싫증을 느낀다.
▶ 감정동사는 과거분사로 쓰여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 10 ① 그는 이 옛날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② 우리가 탄 기차는 5시에 출발해서 런던에 10시에 도착했다.
③ 숙제를 끝내고 나서 그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④ 산에 오를 때는 조심해.
⑤ 나의 취미는 꿈 인형을 만드는 것이다.
▶ 나머지는 분사구문에 쓰인 현재분사지만, ⑤는 보어로 쓰인 동명사이다.

Grammar in Reading

p.70

- 1 (1) 현재분사 (2) 동명사
2 (a) living (b) fascinated (c) named (d) staying
3 (Being) Surrounded 4 fried, Fried 5 ②
6 (1) sitting (2) saved (3) seeing 7 ②, ③

- 1 **해석** | 나는 휴식을 취하며 새들을 보기 위해 시립 공원에 간다. 그러나 요즘 공원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사람들로 꽉 찼다. 왜 도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휴대용 전축을 틀지 못하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평화와 고요함을 즐길 수 있게 하지 않는가?
(1) ▶ 앞의 명사 people을 수식하므로 현재분사이다.
(2) ▶ 「stop + 목적어 + from v-ing」에 쓰인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다.
- 2 **해석** | 몇 년전 나는 생물학-살아 있는 것에 대한 과학-을 공부했다. 나는 돌고래에 매력을 느꼈다. 어느 날 페그라는 이름의 돌고래 한 마리가 우리 시설에 왔고 우리의 거대한 탱크에 넣어졌다. 그 탱크는 소금물로 채워진 둥근 수영장이었다. 여섯 마리의 다른 다양한 돌고래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페그는 특히 더 다정한 것 같았다. 내가 물탱크 주변에서 일을 하면 그 돌고래는 내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자리를 따라 수영을 하곤 했다.
▶ (a) 뒤에 오는 명사 thing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living이 쓰여 '생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b) be동사와 함께 감정의 동사가 과거분사 형태로 쓰이므로 fascinated가 되어야 한다.
(c) '~라고 이름 지어진'의 의미로 쓰려면 과거분사 named가 되어야 한다.
(d) 분사구문으로 주어인 she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staying이 알맞다.
- 3 **해석** | 스프링 가든 아파트 단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최고의 전원 생활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숲과 언덕에 둘러싸인 스프링 가든은 도시에서 10마일 떨어져 있지만 시내까지 고속도로로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 스프링 가든이 아름다운 숲과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수동적인 의미인 과거분사 surrounded가 되어야 한다.
- 4 **해석** | A: 어이,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마늘을 곁들인 달팽이. 달팽이 먹어 봤어?
B: 아니, 먹어 본 적 없어.
A: 오,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지난번에 먹었어. 좀 먹어 볼래?
B: 아니, 됐어. 이상할 거 같아.
C: 후식은 결정했나요?
A: 예, 달팽이를 먹겠어요.
C: 그리고 선생님은요?
B: 난 튀긴 뇌를 먹겠어요.
A: 튀긴 뇌? 그게 이상한 거 같아!
▶ 모두 뒤의 명사 brains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면서 '튀겨진'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과거분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5 **해석** | 우라시마 타로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해변 멀리 아래쪽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그들이 새끼 바다거북을 뒤집고 모래 속에 파묻는 등 못 살게 구는 것을 보았다.

▶ 때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므로 접속사 **when**을 쓰고, 주어와 동사를 써 준다.

6 해석 | 개미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분수로 갔다. 그 개미는 물에 빠져 거의 익사할 뻔 했다.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 앉아 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위험에 빠진 개미를 보았다. 그 비둘기는 나무에서 나뭇잎을 하나 떼어내어 개미의 바로 앞에 떨어뜨려 주었다. 작은 개미는 나뭇잎에 기어올라 목숨을 구했다. 얼마 후에 한 사냥꾼이 화살로 비둘기를 쏘려 했다. 비둘기가 위험에 빠진 것을 알게 된 개미는 사냥꾼의 발뒤꿈치를 물었다. 이것이 사냥꾼이 비둘기를 놓치게 만들었고 비둘기는 멀리 날아갔다.

(1) ▶ a dove를 설명하는 분사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능동의 상황이므로 **sitting**이 되어야 한다.

(2) ▶ 개미가 구해진 상황이므로 과거분사 **saved**가 알맞다.

(3) ▶ the ant를 설명하는 분사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능동의 상황이므로 **seeing**이 되어야 한다.

7 해석 | 많은 사람들이 여행할 때 시차증을 겪는다. 여기 시차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운동이 있다.

똑바로 앉아서 왼쪽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데 의자에서 약 1인치 정도 전체 다리를 들어 올린다. 발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번 돌린다. 오른쪽 발도 반복한다.

어깨를 약간 앞으로 한 채 똑바로 앉는다. 손가락을 함께 모아 가슴 높이까지 양팔을 올리고 양 팔꿈치를 똑바로 한 채,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한다. 쪽 뻗은 다음 편하게 푼다.

▶ ② 「with + 목적어 + 형용사」 형태로 부대 상황을 나타내야 하므로 **by** 대신에 **with**를 써야 한다. ③ 손가락을 함께 하여 팔을 가슴 높이까지 올릴 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분사구문이 되어야 하므로 **keep**은 **keeping**이 되어야 한다.

Grammar in Writing

p.72

1 (1) Not knowing what to say, I kept silent.
(2) Being so poor, he sent his son to school.
(3) Entering the room, he turned on the computer.

2 (1) He was pleased at receiving the prize.
(2) I found the baby sleeping in the cradle.
(3) He stood there folding his arms.

3 (1) He went home satisfied with my present.
(2)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3) Seen from a distance, it looked like an elephant.

4 (1) (Being) Born in Korea, they can speak Korean very well.
(2) The express bus starts at seven, arriving in Busan at eleven.
(3) I felt my heart beating/beat fast.

5 (1) If you turn to the left (2) Because(As) she was ill
(3) When(As) they heard the noise
(4) Although(Though) I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6 (1) lying on the grass (2) The woman dressed in red
(3) keep the door locked (4) The children looked tired

7 (1) surprised to find the vase broken
(2) the language spoken in Singapore
(3) the picture of the dancing girl

8 (1) 길을 걷다가 나는 우리 학교 축제에 관한 좋은 생각이 났다.
(2) 내 여동생은 음악을 들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1 (1)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다.
▶ 접속사를 없애고,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주어 역시 없앤다. 동사는 현재분사의 형태로 고치고, 부정어는 분사 앞에 써 준다.

(2) 그는 너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학교에 보냈다.
▶ **Though**와 **he**를 없애고 **was**의 원형 **be**에 **-ing**를 붙여 **being so poor**로 만든다.

(3) 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 **As soon as**와 **he**를 없애고 동사 **enter**에 **-ing**를 붙여 **Entering**으로 만든다.

2 (1) 그는 상을 받아 기뻐했다.
▶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현재분사를 사용하면 ‘~한 느낌을 주는’의 의미이고, 과거분사를 사용하면 ‘~한 느낌을 받은’의 의미이다. **he**는 기쁜 상황에 처해야 하므로 **pleased**가 맞다.

(2) 나는 아기가 요람에서 자는 것을 발견했다.
▶ 「find + 목적어 + 현재분사/과거분사」의 구문으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분사, 수동이면 과거분사가 알맞다. 여기서는 **baby**와 **sleep**의 관계는 능동이므로 **sleeping**으로 고친다.

(3) 그는 팔짱을 끼고 거기에 서 있었다.
▶ 그가 서 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부대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분사구문이다. 팔짱을 끼는 것은 능동적 행위이므로 **folded**를 **folding**으로 고친다.

3 (1) 그는 내 선물에 만족한 채 집으로 갔다.
▶ 주격보어로 주어의 감정 상태를 설명하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satisfied**가 알맞다.

(2)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 돌이 구르는 상황이므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분사 **rolling**이 알맞다.

(3) 멀리서 보면 그것은 코끼리처럼 보였다.
▶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를 설명하므로, 주어 **it**은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닌 보여지는 것이므로 수동형 분사구문 **being seen**을 사용한다. **being**은 관용적으로 생략된다.

4 (1) ▶ 태어나는 것은 항상 수동태로 표현한다. 분사구문으로 **Being born in Korea**에서 **being**을 생략한 것으로 쓸 수 있다.

(2) ▶ 고속버스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arrive**를 연속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사구문 arriving으로 고친다.

- (3) ▶ feel이 5형식으로 쓰여 목적어인 my heart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말이 필요하다. 주어진 beat는 beating이나 원형 부정사의 형태로, 목적어 my heart 뒤에 목적격보어로 놓는다.
- 5** (1) 왼쪽으로 돌면 나무 지붕을 한 큰 집을 찾을 수 있다.
▶ 주절과의 문맥으로 보아 Turning은 '조건'의 접속사 If로 바꿔 쓸 수 있다.
- (2) 아팠기 때문에 그녀는 어제 학교에 갈 수 없었다.
▶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이유를 나타낸다. Being ~은 '이유'의 접속사 Because나 As를 이용하여 바꿔 쓸 수 있다.
- (3)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서둘러 그 방으로 들어갔다.
▶ 주절과의 문맥으로 보아 Hearing ~은 '시간'의 접속사 When이나 As로 바꿔 쓸 수 있다.
- (4)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모른다.
▶ 주절과의 문맥으로 보아 Living ~은 '양보'의 접속사 Although나 Though로 바꿔 쓸 수 있다.
- 6** (1) 우리는 우리 고양이가 잔디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 our cat과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잔디에 누워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2) 빨간색 옷을 입은 그 여자는 모델이었다.
▶ 모델이었다는 내용과 빨간색 옷을 입은 그 여자와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3) 도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을 꼭 잠가라.
▶ 도둑이 많다는 내용에는 문을 잠그라는 말이 연결되어야 자연스럽다.
- (4)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곤해 보였다.
▶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와 그들의 몸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연결되어야 자연스럽다.
- 7** (1) ▶ 놀랐다는 감정은 과거분사 surprised로 나타낸다는 것과 find의 목적어 the vase와 break는 '수동'적 관계이므로 broken으로 나타낸다는 점에 유의한다.
- (2) ▶ the language는 싱가포르에서 '말하여지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spoken으로 고친다.
- (3) ▶ '춤추는' 여자는 '능동'의 현재분사 dancing으로 만든다.
- 8** (1) ▶ 분사구문과 주절과의 관계로 보아 접속사 while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 ▶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과 음악을 듣는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 동작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Actual Test

p.74

- 1** ② **2** ② **3** (being) watching TV
4 Not having lots of friends **5** ② **6** ③ **7** ②
8 ⑤ **9** ① **10** ④ **11** satisfied

12 The baby called Mia is very lovely.

13 I saw my cousin playing the piano.

14 Who is the girl waiting at the gate?

15 The sportsstar sat surrounded by the fans.

16 ③ **17** ⑤

18 Visiting Japan, I stayed at a Japanese traditional inn.

19 Seeing me, the child smiled.

20 Not studying hard, the students couldn't get good grades.

- 1** ① 나는 그녀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② 내 취미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다.
 ③ 여기서 너를 보다니 놀랍다.
 ④ 그들은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중이다.
 ⑤ 그 TV 프로그램은 재미있었니?
 ▶ ①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로 쓰인 경우로, sitting은 목적어 her에 관한 설명을 하므로 현재분사이다. ② 나의 취미와 playing the computer games는 동격 관계이므로 playing은 동명사이다. ③ surprising은 be동사 뒤에서 주어의 상황을 설명하는 보어로 쓰였으므로 현재분사이다. ④ watching은 be동사와 함께 현재진행형을 만드므로 현재분사이다. ⑤ exciting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는 보어로 쓰인 현재분사이다.
- 2** 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그 소년은 진지해 보인다.
 ② 나는 돋보기를 사야 해.
 ③ 자는 아기를 가만히 내려놓아라.
 ④ 그는 말하기 대화를 위한 에세이를 쓰고 있다.
 ⑤ 노래하는 소녀는 앞으로 스타가 될 것이다.
 ▶ 나머지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로 쓰였지만, ②는 용도를 나타내는 동명사로 쓰였다.
- 3** 나의 부모님은 TV를 보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
 ▶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와 겹치는 they 역시 생략하고 동사에 -ing를 붙인다. being watching ~에서 being을 생략하고 watching으로 쓸 수 있다.
- 4** 나는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외로움을 느낀다.
 ▶ 부정문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는 분사구문 앞에 부정어 not/never를 쓴다. 따라서 Not having lots of friends로 고친다.
- 5** ▶ 책을 읽는 것이 주된 활동에 해당하고, 과자를 먹는 행동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동이므로,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주절 뒤에 eating some snacks를 붙인다.
- 6** ▶ 지각동사 see를 이용한 5형식 문장으로 그 환자가 '실려 가야' 하므로 목적어 the patient와 목적격보어가 수동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carried를 써야 한다.
- 7** 줄을 서 있는 그 노인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앞의 명사인 the old man을 수식하며 '~하는, ~하고 있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현재분사이므로 standing이 맞다.
- 8**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맨 신랑을 보라.
 ▶ 앞의 명사인 the groom을 수식하며, '~하는, ~하고 있는'의 의

미를 나타내는 것은 현재분사이므로 wearing이 알맞다.

- 9 여행객들은 관광가이드에게 자신들의 사진을 찍게 했다.
▶ 사진은 '찍히므로' 수동적 의미의 taken이 알맞다.
- 10 A: 오늘 신문에 재미있는 일거리가 좀 있어?
B: 응, 아이들 책을 파는 일이야.
A: 괜찮겠는데. 나도 그것에 관심이 있어.
▶ 첫 빈칸에는 일이 '재미있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interesting이 알맞다. 두 번째 빈칸에는 아이들 책을 '파는' 일이므로 역시 현재 분사 selling이 알맞다. 세 번째 빈칸에는 '~에 관심 있다'는 be interested in ~이므로 interested가 알맞다.
- 11 우리 선생님은 그 결과에 만족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사람이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로 쓰일 때 과거분사로 쓰인다. 따라서 satisfied로 고친다.
- 12 아기는 매우 사랑스럽다. 그녀는 미아라고 불리운다.
▶ 두 문장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미아라고 불리우는 그 아기는 매우 사랑스럽다.'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called Mia가 the baby를 수식하는 구조로 만든다.
- 13 내 사촌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난 그것을 보았다.
▶ 두 문장을 합쳐 '난 내 사촌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의 의미로 만든다. 「se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현재분사)」의 구조를 이용한다.
- 14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녀는 누구니?
▶ wait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the girl의 앞이나 뒤이고, '~하는'의 의미가 되어야 하며, at the gate가 wait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the girl waiting at the gate의 구조를 만든다.
- 15 그 스포츠 스타는 팬들에 의해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 by the fans로 보아 바로 앞에 surrounded의 형태로, 동사 sat의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16 ① 혼자 남겨져서 나는 두려웠다.
② 왼쪽으로 돌면 그 상점을 찾을 거야.
③ 몸이 좋지 않아서 그녀는 나가지 않았다.
④ 공부에 지쳐 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⑤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
▶ ① 내가 '남겨지게' 된 것이므로 Being left가 되어야 한다.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왼쪽으로 도는 것은 능동적인 의미이므로 Turning이 되어야 한다. ③ 분사구문의 부정어는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쓴다. ④ '~에 지치다'는 be tired of ~이므로 Tired가 되어야 한다. 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동적인 행동이므로 Talking이 되어야 한다.
- 17 ▶ ⑤ the game이 그러한 감정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exciting으로 써야 한다.
- 18 내가 일본을 방문한 동안 나는 일본의 전통 여관에 묵었다.
▶ 접속사와 주어 없이 동사원형에 -ing를 붙여 분사구문을 만든다.
- 19 그 아이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 접속사와 주어 없이 동사원형에 -ing를 붙여 분사구문을 만든다.
- 20 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

었다.

▶ 접속사와 주어 없이 동사원형에 -ing를 붙여 분사구문을 만든다. 부정어는 분사구문 바로 앞에 not/never를 붙여 만든다.



Chapter 05

접속사

Unit 1 등위접속사

p.79

Check Up

- 1 (1) and (2) but (3) so (4) for
- 2 (1) or → but (2) and → or (3) so → but (4) and → or
- 3 (1) and (2) or (3) so 4 ④ 5 ②
- 1 (1) 그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and가 필요하다.
(2) 나는 너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었지만 네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지 않았다.
▶ 상반되는 상황이 오므로 역접의 접속사 but이 필요하다.
(3) 비가 오고 있어서 우산을 가지고 가기로 했다.
▶ 비가 오는 결과 우산을 가지고 가므로 결과를 나타내는 so가 필요하다.
(4) 아버지는 피곤해서 매우 일찍 주무셨다.
▶ 아버지가 일찍 주무시는 이유를 나타내야 하므로 for가 필요하다.
- 2 (1) 내 여동생은 보통은 걸어서 학교에 가지만, 오늘은 택시를 타고 갔다.
▶ 접속사 앞뒤의 상황이 역접이므로 역접의 접속사 but이 알맞다.
(2) 그것을 받아 적어라, 그렇지 않으면 곧 잊어버릴 것이다.
▶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의 의미를 갖는 것은 「명령문 + or ...」구문이다.
(3) 실례합니다만, 당신의 차가 제가 갈 길을 막고 있군요.
▶ excuse me 뒤에는 but이 쓰여서 이유를 설명한다.
(4) 어느 것이 더 크니, 화성이니 달이니?
▶ 선택을 나타낼 때는 or가 쓰인다.
- 3 (1) ▶ 어려운 수학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 보는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and가 쓰여야 한다.
(2) ▶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의 의미를 갖는 것은 「명령문 + or ...」구문이다.
(3) ▶ 영어 시험이 있어서, 그 결과 쇼핑을 갈 수 없으므로 so가 쓰여야 한다.
- 4 오늘날 이 지역은 사막이지만, 수백만 년 전에 이곳은 커다란 호수였다.
▶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but이 적절하다.

- 5 • 그들은 오후 5시에 서울을 출발하여 오후 8시에 부산에 도착했다.
 • 김 선생님을 만나 뵈, 그러면 너는 아마 좋은 충고를 얻게 될 거야.
 ▶ 첫 빈칸에는 시간에 따라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and** 가 적절하고, 두 번째 문장은 '~해라, 그러면 ...'의 의미를 갖는 「명령문 + and ...」 구문이므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and**이다.

Unit 2 상관접속사

p.81

Check Up

- 1 (1) Both (2) Neither (3) either (4) but
 2 (1) but → and (2) and → but
 3 (1) ② (2) ④ (3) ③
 4 either taking a walk or going to the museum
- 1 (1) 그녀와 그녀의 사촌은 둘 다 17세이다.
 ▶ 뒤의 **and**로 보아 **both A and B** 구문이 되어야 한다.
 (2) 그녀도 그도 시계를 갖고 있지 않다.
 ▶ 뒤의 **nor**로 보아 **neither A nor B** 구문이 되어야 한다.
 (3) 너는 이 노란 공이나 저 빨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뒤의 **or**로 보아 **either A or B** 구문이 되어야 한다.
 (4) 커피뿐 아니라 녹차도 카페인에 조금 들어 있다.
 ▶ 앞의 **not only**로 보아 뒤에는 **but also**가 와야 한다.
- 2 (1) 앤의 여동생과 남동생 모두 결혼했다.
 ▶ 앞부분에 **both**가 있으므로 뒤에는 **and**가 쓰여야 한다.
 (2) 그녀의 영어 선생님은 친절할 뿐만 아니라 잘생기기까지 했다.
 ▶ 앞의 **not only**로 보아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다.
- 3 (1) A: 너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니 아니면 걸어서 가니?
 B: 난 버스를 타지도 걸어서 학교에 가지도 않아. 아버지가 항상 태워다 주셔.
 ▶ 뒤의 **or**로 보아 앞에는 **either**가 있어야 한다. **not ~ either A or B**는 **neither A nor B**와 의미가 같다.
 (2) 그 선수는 세계 경기와 올림픽 경기에서 기록을 세웠다.
 ▶ 뒤의 **and**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은 **both**이다.
 (3) 마이크가 아니고 존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 뒤의 **but**으로 보아 앞에는 **not**이 쓰여야 한다. **not A but B** 구문이 쓰인 문장이다.
- 4 ▶ **either A or B** 구문에서 **A**와 **B**는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에 유의한다. **about**이 전치사이므로 모두 동명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Unit 3 종속접속사

p.83

Check Up

- 1 (1) After (2) when (3) that (4) If
 2 (1) when (2) that (3) After (4) because

- 3 (1) ① (2) ③

- 4 (1) 틀린 곳 없음 (2) as → that

- 5 I went to see a movie after I did my homework. / After I did my homework, I went to see a movie.

- 1 (1) 너는 쉬고 나면 확실히 좋아질 거야.
 ▶ '~한 후에'의 뜻을 갖는 **after**를 써야 한다.
 (2) 집에 돌아오면 너게 전화할게.
 ▶ '~할 때'의 뜻을 갖는 **when**을 써야 한다.
 (3) 그녀는 주사가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realize**의 목적어가 되는 절을 이끄는 것은 접속사 **that**이다.
 (4)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불지 못할 것이다.
 ▶ '~한다면'의 뜻을 갖는 조건의 접속사 **if**가 적절하다.
- 2 (1) 친구들이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비웃지 마라.
 ▶ '~할 때'의 뜻을 갖는 **when**을 써야 한다.
 (2) 그녀는 내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나에게 경고했다.
 ▶ 목적어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 **that**이 들어가야 한다.
 (3)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 '~한 후에'의 뜻을 갖는 **after**가 알맞다.
 (4) 나는 아기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콘서트에 갈 수 없었다.
 ▶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가야 한다.
- 3 (1) 네가 그 주제를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주제를 줄 것이다.
 ▶ '~한다면'의 뜻을 갖는 조건의 접속사 **if**가 들어가야 한다.
 (2) 날씨가 나빠서 그들은 야구를 할 수 없었다.
 ▶ 야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날씨가 나빠서이므로 **because**를 써야 한다.
- 4 (1) 그의 아들은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는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
 ▶ 「**tell**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구문으로 직접목적어가 절인 경우이다. 이때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that**이다.
 (2) 그들이 길을 잘못 든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
 ▶ **it**으로 보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절 접속사이다.
- 5 숙제를 한 것이 먼저이므로 이 부분이 부사절이 된다.

Practice Test

p.84

- 1 (1) ③ (2) ④ (3) ①

- 2 (1) and → but (2) after → before (3) Before → Because

- 3 ④ 4 ② 5 ③ 6 (1) If (2) and (3) before (4) Neither

- 7 ② 8 (1) that (2) after (3) so (4) When

- 9 (1) but (2) After 10 ④

- 1 (1)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렸지만 그 책을 읽지 않았다.
▶ 책을 빌렸지만 읽지 않았으므로 역접의 접속사 **but**을 써야 한다.
- (2) 남자 종업원이나 여자 종업원 둘 중의 한 명이 실수를 했다.
▶ 뒤의 **or**와 상관적으로 쓰이는 것은 **either**이다.
- (3) 박물관은 독특하고 아름답다.
▶ 뒤의 **and**와 상관적으로 쓰이는 것은 **both**이다.
- 2 (1) 그녀는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도 말할 수 있다.
▶ **not only**와 상관적으로 쓰이는 것은 **but also**이다.
- (2) 나는 잠을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셨다.
▶ 잠을 자기 전에 우유를 마셔야 하므로 **after**를 **before**로 고친다.
- (3) 날씨가 매우 더웠기 때문에 우리는 수영을 하러 강으로 갔다.
▶ 강으로 수영을 하러 간 것은 날씨가 더워서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가 알맞다.
- 3 A: 대부분의 일본 여자들은 결혼을 할 때 기모노를 입나요?
B: 예, 많은 여자들이 입습니다.
▶ 기모노를 입는 때는 결혼을 할 때이므로 **when**이 알맞다.
- 4 A: 수업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B: 나는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하는 것도 좋아해.
▶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다.
- 5 • 따뜻한 코트를 입어라, 그러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 여전히 아파서 나는 진료를 받으러 갔다.
▶ 첫 번째 문장은 「명령문 + **and**」 구문이므로 **and**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 문장은 여전히 아픈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so**가 들어가야 한다.
- 6 (1) 지금 일어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늦을 거야.
-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늦을 거야.
▶ 「명령문 + **or** ...」 구문은 「**if** + 주어 + **don't** ...」로 바꿔 쓸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if**가 들어가야 한다.
- (2) 네가 거기에 가면 그녀가 만족할 거야.
- 그곳에 가라, 그러면 그녀가 만족할 거야.
▶ 「**if** + 주어 + 동사 ...」는 「명령문 + **and** ...」와 의미가 같다. 따라서 빈칸에는 **and**가 들어가야 한다.
- (3) 커피 한 잔 하자. 그런 다음에 나갈 거야.
- 나가기 전에 차 한 잔 하자.
▶ 커피 한 잔 하는 것이 나가기 전의 일이므로 빈칸에는 **before**가 들어가야 한다.
- (4) 내 남동생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 내 동생도 나도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 않는다.
▶ 내 남동생과 내가 모두 좋아하지 않으므로 **neither A nor B** 구문을 사용한다.
- 7 ① 경기가 끝나면 만나자.
② 당신은 장애물 경기를 언제 시작합니까?
③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④ 그녀가 아이였을 때 그녀는 귀신의 존재를 믿었다.
▶ 나머지는 「~할 때의 뜻」을 갖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지만, ②는

「언제」라는 뜻의 의문사로 쓰였다.

- 8 (1) 명백한 사실은 그가 우리를 속여 왔다는 것이다.
▶ **is**의 보어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끄는 것은 **that**이다.
- (2) 그는 항상 샤워를 한 후에 기분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진다.
▶ 기분이 좋은 것은 샤워를 하고 나서이므로 **after**가 적절하다.
- (3)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녀는 시험에 붙을 수 없었다.
▶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시험에 붙지 못한 것은 결과적인 것이므로 **so**가 적절하다.
- (4)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전화해라.
▶ 내게 전화할 때는 문제가 있을 때이므로 시간의 접속사 **when**이 적절하다.
- 9 (1) ▶ 「A가 아니라 B」라는 뜻을 갖는 것은 **not A but B**이다.
(2) ▶ 「~한 후에」의 뜻을 갖는 것은 접속사 **after**이다.
- 10 ① 나는 할 일이 많았지만 일찍 잤다.
② 나는 파티에 가고 싶지만 너무 바쁘다.
③ 무척 더웠지만 그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
④ 그녀는 신문을 사서 꼼꼼하게 읽었다.
▶ 나머지는 내용상 역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but**이 들어가야 하지만, ④는 시간의 흐름상으로 연결되므로 **and**가 들어가야 한다.

Grammar in Reading

p.86

- 1 ④ 2 (a) After (b) but (c) because 3 ④
4 (1) or in a recess game
(2) If you are always friendly to this boy
5 (1) not only (2) but 6 ⑤
7 (1) when (2) but (3) that (4) If (5) and

1 해석 | 때때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당신을 파티에 초대한다. 당신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은 바빠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 ▶ (a)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으므로 **because**가 알맞다.
(b) 결과를 말하고 있으므로 **so**가 알맞다.
(c) 계속되는 일을 말하므로 **and**가 적절하다.

2 해석 | 그녀의 남편이 죽고 난 후 에밀리는 계속 그 특별한 정원을 보살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원이 아니었다. 식물이 없었다. 에밀리는 가정자리 주변에 꽃들을 심었으나, 그 꽃들은 항상 죽었다. 그녀의 이웃인 블레어 부인이 그것은 아마도 흙에 시멘트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말해 주었다.

- ▶ (a) 「남편이 죽은 후에」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fter**가 알맞다.
(b) 앞뒤의 내용이 역접을 이루고 있으므로 **but**이 알맞다.
(c) 이유를 말하고 있으므로 **because**가 적절하다.

3 해석 | 내가 런던과 같은 대도시들을 방문할 때, 나는 대개 가장 유명한

장소들을 가는 것을 피한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친구 존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지는 않았다. 그는 정말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가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다.

▶ <모나리자>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④는 because가 되어야 한다.

4 해석 | 새로운 학생이 되는 것은 힘들다. 그는 수줍어할지 모르기에 그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기다리지 마라. 단지 인사를 하고, 그가 학급 친구들을 만나도록 도와줘라. 너는 그를 점심 식사나 쉬는 시간 동안의 놀이에 함께 하도록 청할 수도 있다. 네가 항상 이 아이에게 친절하다면 그는 분명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1) ▶ 선택을 나타내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2) ▶ 조건을 나타내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해석 | 계곡의 주민들은 변화들에 대해 속상해할 뿐만 아니라 매우 화가 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가정들은 여러 해 동안 그 계곡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 지역에 수백 채의 새 주택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위협받고 있다.

(1) ▶ 뒷부분에 but also가 있는 것으로 보아 not only가 들어가야 한다.

(2) ▶ 수년 동안 살아왔다는 내용과 그렇게 살아온 삶의 방식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므로 but이 오는 것이 알맞다.

6 해석 | 경찰이 슈퍼마켓에 침입한 한 남자를 잡은 후, 그들은 그 도둑이 사실은 남자처럼 옷을 입은 십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 소녀는 자기 가족은 돈도 없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 ① '~한 후에'의 뜻을 갖는 after가 알맞다. ② discovered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that이 알맞다. ③ told의 직접목적어절을 이끄는 that이 알맞다. ④ 앞뒤의 내용이 역접으로 이어지므로 but이 알맞다. ⑤ 돈을 훔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so가 아닌 because가 들어가야 한다.

7 해석 | 내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때 요란하게 쿵하는 소리가 났다. 무엇인가가 창문을 통해 날아 들어왔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돌덩어리라고 생각했지만 난 그것이 야구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공을 집어 올려 책상 위에 놓았다. 두 명의 어린 남자아이들이 깨진 창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죄송하다고 말하였지만 곧 그 사건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한 아이가 그 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깨진 창문 값을 보상하면"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나서 서로 쳐다보더니 둘 다 뛰기 시작했다.

(1) ▶ 때를 나타내는 when이 알맞다.

(2) ▶ 생각했던 것과 깨달은 것이 다르므로 역접의 but이 알맞다.

(3) ▶ realized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that이 알맞다.

(4) ▶ 조건의 의미를 갖는 if가 알맞다.

(5) ▶ 쳐다본 뒤 뛰기 시작한 것이므로 and가 알맞다.

Grammar in Writing

p.88

- 1** (1) is wearing neither a necklace nor earrings
(2) cooked dinner for you, but it tasted terrible
(3) can watch TV after you do your homework

- 2** (1) I went through my pockets again but still couldn't find my wallet.
(2) I'm going to go to college after I graduate from high school.
(3) It is certain that we will be there in time.

- 3** (1) I like not only to read novels but also to listen to music between classes.
(2) Mr. Kim teaches either Korean language or Korean history.
(3) When I was at home, I read not novels but comic books.

- 4** (1) 우리는 꿈쩍도 안 했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2) 우리 환자들에게는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날씨가 모두 필요하다.

- 5** (1) If you get up earlier, you can see the sunrise.
(2) Clean the room, or Mom will get angry.
(3) Not only I but also my daughter likes watching sports.
(4) Soyun has a lot of friends because she is humorous.

- 6** (1) because I'm busy (2) but didn't read it carefully
(3) before they leave the meeting room
(4) or going out with me

- 7** (1) If you have a problem, ask Anne to help.
(2) Be nice to others, and they will be nice to you.
(3) Did she leave a message before she went?

- 1** (1) ▶ A도 B도 아닌이라는 뜻을 갖는 것은 neither A nor B이다.
(2) ▶ 요리했으나 맛이 없다는 상반된 내용을 나타낼 때는 접속사 but이 필요하다.

- (3) ▶ 숙제를 한 뒤에 TV를 보는 것이므로 after you do your homework가 되어야 한다.

- 2** (1) 나는 주머니를 다시 뒤져보았지만 여전히 내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다.
▶ 주머니를 뒤진 것과 여전히 지갑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서로 상반되므로 so를 but으로 바꾼다.

- (2)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갈 것이다.
▶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이므로 after I graduate가 되어야 한다.

- (3) 우리가 제시한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 It ~ that ... 진주어, 가주어 구문에 쓰여 진주어를 이끌 수 있는 것은 that이다.

- 3** (1) 나는 쉬는 시간에 소설책을 읽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한다.

▶ 'A뿐만 아니라 B도'의 뜻을 갖는 것은 **not only A but also B**이다. A와 B의 문법적 성질이 같아야 하므로 to부정사의 형태가 된다.


- (2) 김 선생님은 한국어나 한국사 둘 중의 하나를 가르치신다.
▶ 'A 또는 B'라는 뜻을 갖는 것은 **either A or B**이다.
- (3) 나는 집에 있었을 때 소설책이 아니라 만화책을 읽었다.
▶ '~한다면'이라는 뜻을 갖는 조건의 if보다는 시간의 접속사 **when**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A 아니라 B'의 의미를 갖는 것은 **not A but B**이다.

- 4** (1) ▶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2) ▶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는 뜻이다.

- 5** (1) 더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일출을 볼 수 있다.
▶ 명령문 + **and ... = if + 주어 + 동사**
- (2) 방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엄마가 화내실 거야.
▶ **If + 주어 + not + 동사 ... = 명령문 + or ...**
- (3) 나는 스포츠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내 딸도 스포츠 보는 것을 좋아한다.
▶ 둘 다 좋아하므로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을 이용한다. 동사는 **B**에 일치시킨다.
- (4) 소윤이는 친구가 많다. 그녀는 유머 감각이 있다.
▶ 소윤이가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이 친구가 많은 이유이므로 **because**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 6** (1) 나는 바빠서 네 숙제를 도와줄 수 없다.
▶ 역접의 내용이 연결되어야 자연스럽다.
- (2) 그녀는 그 잡지를 구독했지만, 꼼꼼히 읽지 않았다.
▶ 잡지를 구독하는 것과 꼼꼼히 읽지 않는 것은 **but**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 (3) 나는 그들이 회의장을 떠나기 전에 돈에 대해 물어볼 것이다.
▶ '~하기 전에'의 뜻을 갖는 내용이 연결되어야 자연스럽다.
- (4) 오늘 집에 있을까? 아니면 나랑 나갈래?
▶ **staying home today**는 **or**에 의해 **going out with me**와 연결되어 쓰일 수 있다. A or B에서 A와 B는 같은 형식이어야 한다.

- 7** (1) ▶ 내용으로 보아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쓰여야 한다.
(2) ▶ '명령문 + and ...' 구문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 '~전에'의 뜻을 갖는 접속사는 **before**이다.



p.90

Actual Test

1 ① 2 ② 3 or 4 that 5 ④ 6 ⑤ 7 ④ 8 If
9 and 10 and 11 ① 12 after
13 When she saw me, she said hello to me.
14 She is very hungry because she didn't eat breakfast.

15 There was an interesting film on TV, but I couldn't watch it.

16 ④ **17** ④ **18** ③ **19** ① **20** ②

- 1** ① 외출하고 싶으면 숙제를 먼저 해라.
② 나는 숙제를 끝내고 친구들과 돌아다닐 거야.
③ 난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신 후에 나갈 수 있어.
④ 내가 묻기 전에는 그 질문에 답하지 마라.
⑤ 요즈음은 너무 덥고 습기가 많아.
▶ ① **while** 대신에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쓰여야 한다.
- 2** ① 나는 이 개들을 둘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② 너는 이 기사나 저 기사를 읽었니?
③ 그는 배가 고픈 것도 피곤한 것도 아니었다.
④ 그는 요리를 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공부를 하고 있다.
⑤ 나는 호랑이뿐만 아니라 사자도 기르고 싶어.
▶ ①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를 의미하므로 복수 개념이다. 따라서 **both of these dogs**가 되어야 한다. ③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니다'는 부정의 의미이므로 부정어 **not**을 쓰면 안 된다. ④ 두 가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that** 대신에 **and**를 써야 한다. ⑤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므로 **only** 앞에 **not**을 써야 한다.
- 3** • 너는 어느 것이 더 좋으니, 물이니, 오렌지 주스니?
• 뛰어나, 그러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거야.
▶ **or**는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며, '명령문 + or ...' 형식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의 의미를 나타낸다.
- 4** • 문제는 그가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다.
▶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절과 진주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that**이다.
- 5** ①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면 그 가게를 찾을 거야.
② 일어서, 그렇지 않으면 네 옷이 젖을 거야.
③ 더 열심히 운동해, 그러면 더 건강해질 거야.
④ 열심히 공부해,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⑤ 최선을 다 해라, 그러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
▶ ④ '명령문 + and ...' 구문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or**를 **and**로 고쳐야 한다.
- 6** A: 나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 그것들은 너무 어려워. 너는 어때?
B: 나는 과학은 안 좋아해. 하지만 수학은 매우 좋아해.
▶ 첫 빈칸에는 '수학과 과학'의 뜻이 되어야 하므로 **and**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 빈칸에는 '수학은 좋아하지만 과학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but**이 알맞다.
- 7** ▶ 때를 나타내는 **when**절을 이용한다.
- 8** 네가 서두르면, 파티에 늦지 않을 거야.
▶ 파티에 늦지 않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므로 조건의 if가 알맞다.
- 9**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 '명령문 + and ...'의 구문으로 '~해라, 그러면 ...'을 적용한다.

- 10** A: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B: 그는 매우 친절하고 항상 도와줘.
▶ 유사한 내용이 이어서 나오므로 and가 알맞다.
- 11** ▶ ① not ... either A or B는 neither A nor B와 같은 의미이다. ②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③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다. ④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는 뜻이다. ⑤ 「명령문 + or ...」는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의 뜻이다.
- 12** 그는 학교를 마쳤다. 그런 후 그는 일 년 동안 식당에서 일을 했다.
→ 그는 학교를 마친 후 일 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다.
▶ 학교를 마친 후에야 식당에서 일을 한 것이 시간적인 순서에 맞으므로 after가 알맞다.
- 13**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녀는 나에게 안부 인사를 했다.
▶ 때를 나타내는 when을 이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한다.
- 14** 그녀는 매우 배가 고프다. 그녀는 아침을 먹지 않았다.
▶ 두 문장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프는 것이므로 because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 15** TV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했다. 나는 그 영화를 볼 수 없었다.
▶ TV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했으나 볼 수 없었으므로 두 문장은 but으로 연결해야 한다.
- 16** ① 내 아들은 성격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② 그는 바빠서 영화 보러 갈 수가 없다.
③ 나는 파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녀의 초대를 거절했다.
④ 내 개는 나가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밖에는 비가 오기 때문이다.
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 ④ 비가 오기 때문에 나가려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는 because가 알맞다. 나머지는 모두 앞부분에 이유가, 뒷부분에 결과가 나오므로 접속사 so가 필요하다.
- 17** ① 나는 공포 영화나 공상 과학 영화는 좋아하지 않는다.
② 네 여동생을 돌봐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③ 너는 어느 것을 먹을래, 스파게티, 아니면 햄버거?
④ 그녀도 그도 산책하길 원하지 않는다.
⑤ 존이나 내가 일요일에 거기에 갈 것이다.
▶ 나머지는 or가 들어가지만 ④는 nor가 들어간다.
- 18** 나는 패션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내 삼촌 중의 한 분이 패션디자이너이시거든.
▶ 내용상 패션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이유가 뒤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19** 나는 그 남자를 알고 있어서 그에게 인사를 했다.
▶ 그를 알고 있어서 인사를 했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 20** 나는 새 옷을 사야 했다. 왜냐하면 살이 빠졌기 때문이다.
▶ 새 옷을 사야 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을 고른다.



Unit 1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역할

p.95

Check Up

- 1** (1) which (2) who (3) what
- 2** (1) a student who (2) music which/that (3) a doctor whose (4) the building which/that
- 3** (1) Look at the child who is singing on the stage.
(2) Please catch the dog that bit me.
(3) He's a stunt actor whom I like.
- 4** (1) whom → which/that (2) whom → who
- 5** (1)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
(2) 네가 만났던 사람이 존슨 씨야.
(3) 너는 지금 김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를 아니?
- 1** (1) 농구는 남자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운동이다.
▶ 선행사가 a sport이고, 목적어를 대신하므로 which가 알맞다.
(2) 나는 긴 치마를 입고 있는 소녀를 보았다.
▶ 선행사가 a girl이고, 주어를 대신하므로 who가 알맞다.
(3)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what이 알맞다.
- 2** (1) 그는 학생이었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다.
→ 그는 그 자동차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한 학생이었다.
▶ 선행사는 a student이고 이어지는 절에서 주어 He를 대신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한다.
(2) 사람들은 음악을 즐긴다. 그것은 그들을 흥분되게 한다.
→ 사람들은 기분을 신나게 해 주는 음악을 즐긴다.
▶ 선행사는 music이고, 이어지는 절에서 주어 It을 대신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한다.
(3) 나는 한 의사를 알고 있다. 그의 부인은 가수이다.
→ 나는 아내가 가수인 의사를 알고 있다.
▶ 선행사는 a doctor이고, 이어지는 절에서 소유격 His를 대신하므로 소유격관계대명사 whose를 이용한다.
(4) 그 건물을 기억하지 못하니? 너는 거기를 작년에 방문했잖아.
→ 작년에 방문했던 그 건물을 기억하지 못하니?
▶ 선행사는 the building이고, 이어지는 절에서 목적어 it을 대신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한다.
- 3** (1) 그 아이를 봐라. 그는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
▶ 선행사를 the child로 하고, he가 주어이므로 관계대명사는 주격이 된다.
(2) 저 개를 잡아 주세요! 그것이 저를 물었어요.
▶ 선행사를 the dog로 하고, it이 주어이므로 관계대명사는 주격이 된다.

(3) 그는 스텐트 배우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 선행사를 a stunt actor로 하고, him이 목적어이므로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 된다.

4 (1) 내가 구운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다.
▶ 선행사가 the cake으로 사물이므로 whom을 which나 that으로 고쳐야 한다.

(2) 그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선행사는 no one이고, 이어지는 절에서 주어에 필요하므로 whom 대신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써야 한다.

5 (1) ▶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절이 선행사 the most beautiful house를 수식하도록 해석한다.

(2) ▶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의 선행사인 the person이 문장의 주어이고, whom you met은 선행사 the pers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절, 동사는 is이므로 관계를 생각하여 해석한다.

(3) ▶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이 선행사 the man을 수식하도록 해석한다.

Unit 2 관계부사의 종류와 역할

p.97

Check Up

1 (1) the reason (2) the library (3) Friday

2 (1) the city where (2) the reason why (3) how/a way (that)

3 (1) when → where (2) the way how → the way/how/the way that (3) why → when (4) when → why

4 where 5 (1) ② ③ (3) ③

6 (1) 그 경찰관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자신이 도둑을 잡은 방법을 말해 주었다.

(2) 우리의 여름 방학이 있는 8월이 가장 덥다.

1 (1) 그녀는 내가 어제 온 이유를 모른다.
▶ 선행사는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의 바로 앞에 있는 the reason이다.

(2) 나는 많은 책들이 있는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 선행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의 바로 앞에 있는 the library이다.

(3) 내가 병원에 가는 금요일에 오지 마라.
▶ 선행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의 바로 앞에 있는 Friday이다.

2 (1) 나는 그 도시를 안다. 너는 작년에 그 도시에 머물렀다.
→ 나는 네가 작년에 머물렀던 그 도시를 안다.
▶ 두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앞 문장의 the city와 뒷문장의 the city이므로, 앞 문장의 the city는 선행사, 뒷문장의 in the city는 관계부사 where로 대신하여 연결해 준다.

(2) 그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 이유로 체육관에 간다.
→ 그는 내가 체육관에 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 두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앞 문장의 the reason

과 뒷문장의 the reason이므로, 앞 문장의 the reason은 선행사, 뒷문장의 for the reason은 관계부사 why로 대신하여 연결한다.

(3) 걷기는 한 방법이다. 나는 그 방법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 걷는 것은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다.

▶ 두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앞 문장의 a way와 뒷문장의 the way이므로, 앞 문장의 a way는 선행사, 뒷문장의 in the way는 관계부사 how로 대신할 수 있지만 how와 선행사는 같이 쓰이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만 쓴다.

3 (1) 나는 몇몇 사람들이 죽은 강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 선행사가 the river이므로 관계부사 when을 where로 고친다.

(2) 그는 우리가 그 상품 값을 지불한 방법에 대해 말했다.
▶ 선행사가 the way이므로 관계부사 how를 생략하든지, 선행사 the way를 생략한다. 또는 how를 관계대명사 that으로 고친다.

(3)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날을 잊지 마세요.
▶ 선행사는 the day이므로, 관계부사 why를 when으로 고친다.

(4) 그것이 그들이 어제 싸운 이유인가요?
▶ 선행사가 the reason이므로, 관계부사 when을 why로 고친다.

4 • 사람들이 헬로 키티 제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몇 개 있다.
• 이라크는 우리가 여행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나라이다.
▶ 첫 문장의 선행사가 several shops로 장소를 나타내고, 두 번째 문장의 선행사도 a really dangerous country로 역시 장소를 나타내므로 공통의 관계부사는 where이다.

5 (1) 그는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는 6시 전에 일어난다.
▶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므로 when이 알맞다.

(2) 나는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 선행사가 방법을 나타내므로 how가 알맞은데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같이 쓸 수 없으므로 how 대신 that을 쓴다.

(3) 그녀는 자기가 서두르는 이유를 내게 말하지 않았다.
▶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내므로 why가 알맞다.

6 (1) ▶ 관계부사 how가 이끄는 절은 생략된 선행사 the way를 수식하는 명사절로 해석할 수 있다.

(2) ▶ 관계부사 when이 이끄는 절이 형용사절 역할을 하여 선행사 August를 수식하도록 해석한다.

Practice Test

p.98

1 (1) which (2) whose (3) which

2 ①, ③, ④ 3 ② 4 ① 5 ② 6 ② 7 ②, ③

8 (1) which (2) why (3) that

9 (1) the way how → the way/how/the way that (2) 틀린 곳 없음 (3) which → when (4) have → has

10 ④ 11 ① 12 ③ 13 ② 14 ②

- 1 (1) 너는 아직도 내가 사 준 CD를 들고 있니?
▶ 선행사는 CD이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알맞다.
- (2) 너는 색이 빨간 라디오를 사고 싶니?
▶ 선행사는 a radio이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완전하며 뒤에 명사가 있으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알맞다.
- (3) 여자들은 대개 매우 비싼 다이아몬드를 좋아한다.
▶ 선행사는 diamonds이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의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알맞다.
- 2 ① 나는 내가 비웃었던 그 여자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② 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영화를 만들겠다.
③ 그것은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자전거이다.
④ Susan은 나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 주었다.
⑤ 아이들은 담장이 높은 집을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목적격으로 쓰인 ①, ③, ④는 생략할 수 있다. ②는 주격, ⑤는 소유격으로 쓰였다.
- 3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보라.
▶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고, 선행사가 없으므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what**이다. **what**은 Look at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4 나는 그의 팀이 그 경기에서 이긴 한 농구 선수를 만났다.
▶ 선행사는 a basketball player이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완전하며, 뒤에 명사가 이어지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와야 한다.
- 5 그것은 모든 종류의 과일을 찾아볼 수 있는 상점이다.
▶ 선행사가 the shop이고 빈칸 뒤의 절이 주어나 목적어 등 주요한 요소들이 빠지지 않고 완전하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알맞다.
- 6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인 동물들을 돌보아야 한다.
▶ 선행사는 animals이고, 빈칸 뒤의 절에서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알맞다.
- 7 ① 풀은 내가 어떤 가방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았다.
② 나는 너무 비싼 셔츠를 사지는 않을 것이다.
③ 너는 너를 기쁘게 해 주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좋겠다.
④ 그는 내게 그 책이 생일 선물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① **which**는 선행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뒤의 bag과 함께 '어느 가방'의 뜻으로 쓰인 의문사이다. ② **that**은 the shirt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이다.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절에서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③ **which** 앞에 선행사로 a pet이 있고 이어지는 절에서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④ **that** 앞에 선행사 역할을 하는 명사가 없고, **that**이 이끄는 절은 완전하므로 **that**은 tell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 8 (1) 자유의 여신상으로 유명한 뉴욕에 가 본 적이 있니?
▶ 선행사는 New York,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절의 주어 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필요하다.

- (2) 그 남자는 언덕 위에 자기 집을 지은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다.
▶ 선행사는 a special reason, 빈칸 뒤에 이어지는 절은 완전하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대신하는 관계부사 **why**가 필요하다.
- (3) 내가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선행사는 any way, 빈칸 뒤에 이어지는 절은 완전하므로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대신하는 관계부사 **how**가 필요하나, **how**와 선행사 **way**는 함께 쓰이지 않으므로 **how**를 대신하는 **that**이 알맞다.

- 9 (1) 그것은 그녀가 불고기를 만드는 방법이다.
▶ 선행사가 the way일 때 관계부사는 **how**를 쓸 수 없으므로, 선행사나 관계부사 중 하나를 생략하거나 **how** 대신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 (2) 그녀는 돌보아야 할 딸이 세 명 있다.
▶ daughters 와 she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되었다.
- (3) 11월 25일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한 날이다.
▶ 선행사는 the day이고, 이어지는 절은 완전하므로 관계대명사 **which** 대신에 관계부사 **when**을 쓴다.
- (4) 너는 주머니가 많은 코트를 원하니?
▶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수는 선행사와 일치시킨다. 따라서 선행사 a coat가 단수이므로 동사는 **has**가 되어야 한다.

- 10 꽃을 따는 사람은 내 이모야.
▶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동사는 선행사와 수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단수 the person에 맞는 **sells**를 쓴다.
- 11 불행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는 날 돌아가셨다.
▶ 선행사는 the day, 빈칸 뒤의 절은 완전하므로 관계부사 **when**이 필요하다.
- 12 나는 방이 깨끗하지 않은 호텔을 싫다.
▶ 선행사는 a hotel, 빈칸 뒤에 이어지는 절은 완전하고, 뒤에 명사가 이어지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쓴다.
- 13 당신은 저기 걸어가고 있는 소년과 개를 볼 수 있나?
▶ 선행사는 a boy and a dog로 「사람 + 동물」이고, 빈칸 뒤에 이어지는 절의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필요하다.
- 14 ① 나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고전 음악을 좋아해.
② 사람들은 그가 몸짓으로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③ 이것이 내 여동생이 사고 싶어하는 디지털 카메라이다.
▶ 나머지 빈칸에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들어가지만, ②에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간다. ①의 **which** (**that**)은 music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 ③의 **which**(**that**)은 bu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

- 1 ② 2 ④ 3 (a) which (b) are (c) were
 4 what others say and do 5 when 6 ④
 7 (1) that/which (2) What 8 (1) when (2) which/that

- 1 **해석**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녀의 큰 집에서 홀로 사셨다.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거의 돌아다닐 수도 없으셨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녀의 큰 집에 머물기로 마음 먹었다.
 ▶ 마지막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빈칸 뒤에 동사가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인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2 **해석** | “아까씨냐? 아니면 호랑이나?”라는 이야기에서 젊은 남자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결정이다. 당신이 했던 중요한 선택들은 무엇이었던가?
 ▶ 생각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므로 선행사인 **some important choices**와 「주어+동사~」 구조인 **you have made** 사 이에 목적격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 3 **해석** | 우리가 오늘날 읽는 민담은 오랜 세월을 걸쳐 들어 온 이야기들이다. 종종 민담은 교훈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도 준다.
 ▶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선행사에 의해 결정되고, 주격 관계대명사에 이어지는 동사는 선행사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a) read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알맞다.
 (b) 선행사 **the folktales**에 수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are**가 알맞다.
 (c) 선행사 **stories**에 수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were**가 알맞다.
- 4 **해석** |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꼭 “인기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당신은 쉽게 친구를 사귄 수 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 **in**의 목적어가 되면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절이 되어야 하므로 「**what**+주어+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 5 **해석** | 멕시코에서 1월 17일은 **St. Anthony's Day**이다. 그 날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물들을 교회로 가져오는 날이다. 그러나 동물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 동물들을 꽃으로 치장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선행사는 **a day**이고, 이어지는 절은 완전하므로 관계부사로 연결시킨다.
- 6 **해석** | 당신은 잠을 잘 잘 수 없을 때가 있다.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한 가지 더. 저녁에 뭘 먹는지 살펴보아라. 때때로 당신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 ④의 **that**은 지시대명사로 쓰여 앞의 내용을 받는다. 즉, ‘저녁에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한다. ①은 관계부사, ②와 ③은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 7 **해석** | 전형적인 비행기에서의 아침 식사는 치즈 오믈렛과 베이컨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약 900칼로리이다. 당신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항공사에 특별한 식사를 요구

하라.

- (1) ▶ 선행사는 **calories**이고 빈칸 뒤에 동사가 온 것으로 보아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들어가야 한다.
- (2) ▶ 선행사를 포함하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what**이다.
- 8 A: 존, 다음 주가 **St. Patrick's Day**인 걸 알고 있었니?
 B: 오, 그래? 그때 무슨 일이 있는데, 마이크?
 A: 음, 아일랜드 사람들이 초록색으로 입을 날이야. 그리고 대개 큰 퍼레이드가 있고, 많은 파티가 있지. 파티에 가고 싶니?
 B: 좋아.
 A: 좋아! 초록색으로 된 것을 입을 거 잊지 마.
 B: 알았어. 아마 네가 내 생일에 나에게 준 그 초록색 넥타이를 하게 될 거야.
 (1) ▶ 선행사가 **a day**이고, 빈칸 뒤의 절이 완전하므로 관계부사 **when**이 알맞다.
 (2) ▶ 선행사는 **that green tie**, 관계대명사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which**나 **that**이 알맞다.

- 1 (1) The man whom I met three years ago is a director.
 (2) The World Cup was held in 2002 when we met.
- 2 (1) a country where we can get (2) me what you know
 (3) the reason why he was
- 3 (1) The book which I gave you is a little boring.
 (2) Would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Gyeongbok Palace?
 (3) The foreigner bought a bicycle which was made in Korea.
- 4 (1) 그 영화는 아이가 실종된 엄마에 관한 것이다.
 (2)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남자는 유명한 사진작가이다.
 (3) 당신이 일하는 공장은 얼마나 큼니까?
- 5 (1) I found how we could solve the problem. / I found a way (that) we could solve the problem.
 (2) The city has five schools which/that were built 30 years ago.
- 6 (1) I am just a student who has a great dream.
 (2) There is a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3) Don't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 7 (1) She has two daughters who are teachers.
 (2) I have the letter which you sent to me last year.
 (3) What she told you is not a lie.
- 8 (1) 이 사람은 내가 지난주에 말한 그 과학자이다.
 (2) 대부분의 남자들은 긴 생머리의 여자들을 좋아한다.
 (3) 시드니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책을 쓴다.

- 1 (1) 그 남자는 감독이다. 나는 그를 3년 전에 만났다.
▶ 첫 번째 문장의 The man을 선행사로, 두 번째 문장의 him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으로 바꿔서 연결한다.
- (2) 월드컵은 2002년에 열렸다. 우리는 그 해에 만났다.
▶ 첫 번째 문장의 2002년을 선행사로, 두 번째 문장의 부사구 that year를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서 연결한다.
- 2 (1) 나는 많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 선행사 a country 뒤에 관계부사 where를 연결시킨다.
- (2) 너는 그 소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내게 말할 수 있다.
▶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하는 문장이다. tell은 「tell+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의 4형식 문장으로 쓰이므로 what 이하가 직접목적어가 된다.
- (3) 그가 결석한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니?
▶ 선행사인 the reason 뒤에 관계부사 why를 연결한다.
- 3 (1) ▶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서로 붙어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선행사는 the book,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which, 그 뒤에 「주어+동사」 형태가 온다.
- (2) ▶ Would you로 시작하는 의문문임에 유의한다. 관계부사 how가 쓰이므로 선행사는 없다.
- (3) ▶ 선행사는 a bicycle, which가 이끄는 절이 뒤에서 a bicycle을 수식한다.
- 4 (1) ▶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선행사의 소유를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한다.
- (2) ▶ 선행사인 the guy는 문장의 주어로 쓰였음에 유의한다.
- (3) ▶ where가 이끄는 절이 선행사인 the factory를 수식함에 유의하여 해석한다.
- 5 (1) 나는 방법을 찾았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 관계부사 how를 쓰기 위해서는 a way를 생략하거나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한다.
- (2) 그 도시는 5개의 학교를 갖고 있다. 그것들은 30년 전에 지어졌다.
▶ five schools를 선행사로 하고, 뒤의 대명사 they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으로 바꿔서 연결시킨다.
- 6 (1) 나는 큰 꿈을 가진 학생이다.
▶ 선행사가 a student이므로 동사는 선행사에 수를 일치시켜 has가 되어야 한다.
- (2) 꼭대기가 눈으로 뒤덮인 산이 있다.
▶ which가 명사 top을 수식할 수 없으므로 소유격 형태가 되어야 한다.
- (3)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한다.
- 7 (1) ▶ 선행사를 two daughters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이 뒤에서 선행사를 수식한다.
- (2) ▶ the letter를 선행사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절이 뒤에서 선행사를 수식한다.

(3)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 역할을 한다.

- 8 (1) ▶ scientist 와 I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된 문장이다.
- (2) ▶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사용된 문장으로 바로 뒤에 명사가 온다는 점에 유의한다.
- (3) ▶ a way (how) 구조로서 I like가 선행사 a way를 수식하도록 해석한다.



Actual Test

p.104

1 ①, ② 2 ② 3 ③ 4 ①, ③ 5 ② 6 ⑤

7 I lost the book which/that you bought for me for my birthday.

8 She has three daughters whom/who she has to look after.

9 ④ 10 ⑤ 11 ③ 12 are → is

13 which → where / in which 14 ① 15 ⑤ 16 ③

17 A child whose parents are dead is called an orphan.

18 This is the bakery where I always buy a sandwich.

19 My sister never cleans the room which she shares with me.

20 She is always kind to the people who are poor.

1 그 물고기는 지금 살아 있지 않다. 나는 그것을 어제 잡았다.
→ 어제 내가 잡은 물고기는 지금 살아 있지 않다.

▶ 첫 번째 문장의 the fish와 두 번째 문장의 it이 동일물이므로, the fish가 선행사가 되며, i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 한 문장으로 만든다.

2 ② 누구도 그녀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 믿지 않는다.

▶ she told us는 직접목적어가 필요한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①, ③, ④, ⑤에는 선행사가 없으므로 틀린 문장이다. 선행사를 포함한 what을 쓴 ②가 맞는 문장이다.

3 ▶ I visited the city. It has a good museum.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형태로, the city를 선행사로 하고 It은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꾼 ③이 바른 문장이다.

4 그것은 거의 모든 여자들이 읽고 싶어 하는 잡지이다.

▶ 선행사가 사물이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that이 알맞다.

5 ① 그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② 나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

③ 당신은 머리가 붉은색인 소녀를 아니까?

④ 그녀는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도시를 방문했다.

⑤ 그는 내가 중국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

▶ ② 선행사는 a comedian이고, 관계대명사로 주격 who가 쓰였으므로 바로 뒤의 동사는 선행사와 수를 일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makes가 되어야 한다.

- 6 • 나는 미국에서 온 선생님을 알고 있다.
 - 우리는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산에 올라갔다.
 - 그는 이름이 톰인 그 남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 ▶ (a) 선행사는 a teacher, 이어지는 절에서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필요하다.
 - (b) 선행사는 the mountain, 이어지는 절이 완전하므로 장소의 관계부사 where가 필요하다.
 - (c) 선행사는 the man, 바로 이어서 명사가 오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필요하다.
- 7 나는 네가 내 생일에서 준 그 책을 잃어버렸다.
 - ▶ the book과 you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that이 생략되었다.
- 8 그녀는 돌봐야 할 세 딸이 있다.
 - ▶ daughters와 she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되었다.
- 9 • 너는 자라면 무엇이 되고 싶니?
 - 너는 너의 삼촌이 여기 도착한 날짜를 기억하니?
 - ▶ 첫 빈칸에는 '~할 때'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필요하다. 두 번째 빈칸에는 두 문장이 연결되어야 하고, 선행사 역할을 하는 명사 the day가 있고, 이어지는 절이 완전하므로 시간의 관계부사 when이 필요하다.
- 10 • 케이트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준 돈을 잃어버렸다.
 -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사실이야?
 - ▶ 첫 문장에서 the money가 선행사이고, 이어지는 절은 직접목적어가 필요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 it은 가주어이므로, 진주어인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that이다.
- 11 • 이것은 그가 운전 면허증을 딴 방법이다.
 - 그들은 내게 여행이 어땠는지 물었다.
 - ▶ 첫 빈칸에는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 how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문장에서 빈칸 뒤의 부분은 의문사 how가 이끄는 절로 ask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how이다.
- 12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다.
 - ▶ 주격 관계대명사 who의 동사는 선행사인 the girl과 수 일치를 시켜야 하므로 are를 is로 바꿔야 한다.
- 13 나는 내가 태어난 집을 잊지 않았다.
 - ▶ I haven't forgotten the house.와 I was born in the house.를 합한 문장으로 in the house를 대신할 장소의 관계부사 where나 which 앞에 전치사 in이 필요하다.
- 14 ① 당신은 그것이 귀신이라고 믿느냐?
 - ② 이것보다 더 큰 돌을 찾아라.
 - ③ 그는 잡동사니로 가득 찬 작은 상자를 가지고 있다.
 - ④ 축구는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운동이다.
 - ⑤ 그녀는 매우 싼 반지를 샀다.
 - ▶ ① that은 지시대명사로 쓰여 '그것은'의 의미이고, 나머지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 15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돈이 아니다.

▶ 관계대명사 중 명사절을 만들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what뿐이다.

- 16 우리 학교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몇몇 선생님들을 찾고 있다.
 - ▶ 선행사가 some teachers이고, 관계사절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이다.
- 17 아이를 고아라고 부른다. 그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 ▶ 선행사는 a child이고, 소유격인 his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ose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한다.
- 18 이곳은 제과점이다. 나는 항상 그곳에서 샌드위치를 산다.
 - ▶ 선행사는 the bakery이고, 부사 there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한다.
- 19 ▶ 선행사를 the room으로 하고,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을 이어서 만든다.
- 20 ▶ 선행사를 the people로 하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그 뒤에 이어지도록 문장을 만든다.



Chapter 07

전치사

Unit 1 시간 전치사

p.109

Check Up

- 1 (1) at (2) in (3) for (4) on
- 2 (1) at → on (2) on → 삭제 (3) on → in (4) for → during
- 3 (1) at half past two o'clock (2) for a while (3) before finishing his work
- 4 ④ 5 ③
- 1 (1) 기타 수업은 4시에 시작한다.
 - ▶ 시각 앞에는 전치사 at을 쓴다.
- (2) 그들은 1월에 유럽에 있는 몇 나라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 ▶ 달 앞에는 in을 쓴다.
- (3) 나는 10년 동안 매일 일을 했다.
 - ▶ 뒤에 숫자가 있는 시간이 왔으므로 전치사 for가 알맞다.
- (4) 추수감사절에 그들은 칠면조를 먹는다.
 - ▶ 특정한 날 앞에는 전치사 on을 쓴다.
- 2 (1) 나는 화요일에 수학 시험을 보았다.
 - ▶ 요일 앞에는 on을 쓴다.
- (2) 그는 다음 화요일에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 ▶ next, this, every, last 등이 시간, 요일, 월 등과 같이 쓰이면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 (3) 그녀는 2008년에 비서로 일했다.
 - ▶ 연도 앞에는 in을 쓴다.

- (4)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 the course라는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으므로 during을 써야 한다.
- 3** (1) ▶ 시각을 나타내므로 at이 쓰여야 한다.
(2) ▶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for a while이다.
(3) ▶ ‘~전에’의 의미를 갖는 것은 before이다.
- 4** • 당신은 11월에 어디에 있었나요?
• 당신은 11월 27일에 무엇을 했나요?
▶ 월 앞에는 in, 월과 일이 함께 쓰인 특정한 날 앞에는 on을 쓴다.
- 5** • 몇 분 후에 그녀의 남편이 돌아왔다.
• 당신은 일주일 후에 답을 알게 될 것이다.
▶ after a few minutes 몇 분 후에, in a week 일주일 이 지나서

Unit 2 위치 전치사

p.111

Check Up

- 1** (1) at (2) in, under (3) at (4) in
2 (1) in → on (2) on → over **3** (1) ④ (2) ② (3) ③
4 (1) over the lake (2) on the ceiling
- 1** (1)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 좁은 장소이므로 at을 쓴다.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2) 몇몇 아이들이 다리 밑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 in the water 물속에서, under the bridge 다리 밑에서
(3) 지면 아래쪽에서 두 개의 원을 찾아라.
▶ at the bottom of ~의 바닥에
(4) 그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
▶ 장소를 나타내므로 in이 알맞다. in the gym 체육관에서
- 2** (1) 치과 의원은 10층에 있다.
▶ ‘~층에’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 on을 쓴다.
(2) 그 남자는 담을 넘어 앞 마당으로 넘어갔다.
▶ ‘담을 넘어’의 의미이므로 over를 써야 한다.
- 3** (1) ▶ ‘~아래에’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는 under이다.
(2) ▶ ‘떨어져서 아래’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below이다. below the horizon 지평선 아래
(3) ▶ ‘비행기 사고로 죽다’라는 의미이므로 전치사 in이 알맞다.
- 4** (1) ▶ ‘물 위에’라는 접촉되지 않은 위를 나타내므로 over가 알맞다.
(2) ▶ 파리가 천장에 붙어 있는 것이므로 on이 알맞다.

Unit 3 방향 전치사

p.113

Check Up

- 1** (1) from, to (2) towards (3) down (4) along
2 (1) down (2) towards (3) among
3 (1) ② (2) ③
4 (1) along → across (2) up → over
- 1** (1)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직장까지 걸어간다.
▶ ‘~에서 ...까지’라는 의미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from과 도착점을 나타내는 to를 이용한다.
(2) 그 무용수는 자신의 파트너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 ‘~을 향해’의 뜻을 갖는 것은 towards이다.
(3) 눈물이 그녀의 뺨을 흘러 내리고 있었다.
▶ ‘흘러 내리다’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down이 알맞다.
(4) 벽을 따라 벤치들이 있다.
▶ ‘~을 따라서’의 뜻을 갖는 것은 along이다.
- 2** (1) 그는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 ‘아래쪽으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down이다. fall down ~에서 떨어지다
(2) 그들은 독일 국경을 향하고 있었다.
▶ towards는 ‘~을 향해, ~쪽으로’의 의미이다.
(3) 그들은 군중 사이를 어슬렁거렸다.
▶ ‘셋 이상의 사이에’는 among, ‘두 사람 사이에’는 between을 쓴다.
- 3** (1) ▶ 도착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to이다.
(2) ▶ ‘~로부터’의 뜻으로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from이다.
- 4** (1) ▶ ‘~을 가로질러’의 뜻을 갖는 것은 across이다.
(2) ▶ 산 위를 넘어가는 것이므로 over가 알맞다.

Practice Test

p.114

- 1** (1) ③ (2) ④ (3) ① **2** (1) ④ (2) ③ **3** ② **4** ②
5 (1) ① (2) ③ (3) ② (4) ① **6** ③
7 (1) over (2) in (3) towards (4) under
8 (1) over (2) from, to (3) On **9** ④
- 1** (1) 나는 엄마의 눈 밑에 있는 그 다크서클을 보면 마음이 안 좋다.
▶ ‘~아래에’의 뜻을 갖는 것은 under와 below인데, ‘눈 밑의’라는 뜻이므로 under가 알맞다.

- (2) 나는 한 노부인이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도왔다.
▶ '버스에 타다'라고 할 때는 get on을 쓴다.
- (3) 우리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 '바다에서'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전치사 in을 쓴다. in the sea 바다에서

2 (1) 저는 최근에 우체국에서의 안 좋은 서비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우표를 사기 위해 25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 ④ '~동안 기다리다'라는 뜻이므로 25 minutes 앞에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가 필요하다.

- (2) 나는 지난여름 며칠 동안 우리가 뉴욕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정말 너무 더웠다. 심지어 밤에까지도 더웠다. 그래서 끔찍한 기분을 느꼈다.
▶ '~동안'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in 대신에 for를 써야 한다.

3 • 그녀는 주말 동안에 매우 아팠다.
• 학생들은 수업을 하는 동안 매우 재미있어 보였다.
▶ '주말 동안에'는 전치사 during을 사용하여 during the weekend로, '수업 동안에'는 during the lesson으로 나타내므로 공통으로 알맞은 전치사는 during이다.

4 A: 주말에 무슨 계획 있니?
B: 응. 정말 바쁠 거 같아.
A: 나도 그래. 토요일에는 뭐 할 거니?
B: 바다로 서핑을 갈 거야.
A: 재미있겠다!
▶ '주말을 위한'의 의미는 for the weekend로 나타낼 수 있고, 요일 앞에서는 전치사 on을 써야 한다.

5 (1) 나는 너무 많이 달린 후에 속이 울렁거렸다.
▶ 너무 많이 달려서 속이 울렁거리는 것이므로 둘을 연결한다.

(2) 어제 나는 숙제를 끝낸 후에 TV를 시청했다.
▶ TV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숙제를 끝낸 후가 좋을 것이다.

(3) 누군가가 밤에 노래를 크게 불렀다.
▶ 한밤중에 누군가가 노래를 크게 불렀다는 것이 내용상 자연스럽다.

(4) 나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 생각을 신중하게 하는 경우는 질문을 하기 전이어야 한다.

6 ① 그는 2시간 동안 물리를 공부했다.
② 고통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③ 그 도시는 강들로 유명하다.
④ 군인들은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었다.
▶ ①, ②, ④의 for는 모두 시간 앞에 쓰여 '~동안'의 의미이고, ③의 for는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였다.

7 (1) 나는 벽을 넘어갔다.
▶ '~을 넘어'의 의미로는 전치사 over를 쓴다.

(2) 강도들은 아직도 은행에 있다.
▶ '~안에'의 의미를 갖는 것은 in이다.

(3) 너는 오른쪽으로 돌아 우체국 쪽으로 걸어가야 한다.
▶ '~쪽으로'의 의미를 갖는 것은 towards이다.

- (4) 내 개는 테이블 아래에 숨는 것을 좋아한다.
▶ '~아래에'의 의미를 갖는 것은 under이다.

8 (1) ▶ 공을 네트 '너머로' 쳐야 하므로 over가 알맞다.
(2) ▶ '~에서 ...까지'는 from ~ to ...로 나타낸다.
(3) ▶ 특정한 날 앞에는 전치사 on을 쓴다.

9 ①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니?
② 내 커피에는 설탕이 너무 많아.
③ 겨울에 돌아올 거야?
④ 다음 경기는 12월18일에 있어.
▶ 나머지 빈칸에는 in이 들어가지만, 특정한 날 앞에는 전치사 on을 쓰므로 ④에는 on이 들어가야 한다.

Grammar in Reading

p.116

- 1** (a) after (b) during **2** ⑤ under → over **3** ②
4 (1) on (2) at (3) during (4) under (5) towards (6) in
5 (1) towards (2) over (3) on (4) along (5) on (6) towards

1 **해석** | A: 그 기모노를 입으니 아름답구나, 마리아. 이것이 네 결혼사진이니?
B: 예, 맞아요.
A: 대부분의 일본 여자들이 결혼할 때 기모노를 입니?
B: 예, 많은 여자들이 입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끝난 후에 보통은 축하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구식 신부복으로 같이입어요.
A: 아, 몰랐어.

▶ (a) '결혼식 후에'라는 뜻이므로 전치사 after가 알맞다.
(b) 뒤에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전치사 during이 알맞다.

2 **해석** | 땅콩버터, 꿀, 그리고 바나나를 얹은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알려 줄게. 우선, 빵 두 조각을 놓고 그 위에 땅콩버터를 바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바나나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빵 한 조각에 그것들을 올려놓아. 그리고 나서 바나나 위에 꿀을 약간 부어. 그리고 다른 빵 한 쪽을 위에 놓아.
▶ ⑤ 바나나 위에 꿀을 붓는 것이므로 over가 알맞다.

3 **해석** |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 미국에서 살기 위해 바다를 가로질러 여행을 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민자들, 즉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 했던 과정을 이민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미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은 거리가 "금으로 포장된" 기회의 땅이라고 들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고향을 떠나는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① 특정한 기간이 뒤에 나왔으므로 전치사 during이 알맞다.
② '바다를 가로질러'의 의미이므로 along이 아니라 across가 알맞다.
③ 미국이라는 넓은 장소를 나타내므로 in이 알맞다.

- ④ '~로부터'의 의미를 갖는 것은 from이다.
- ⑤ 도착점을 나타내는 것은 전치사 to이다.

4 해석 | 나는 문 옆 바닥에 있는 신문을 보면 내 친구를 생각하게 된다. 몇 년 전에 그는 회의에 참석하러 여행을 가야 했는데 한밤중에 호텔에 도착했다. 그는 정말 피곤해서 옷을 다 벗었고 침대로 들어갔다. 한밤 중 어느 때인가 그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했다. 그는 정말 잠이 깨지 않았고 매우 어두웠지만 욕실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닫혔을 때 그는 자기가 욕실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복도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는 다른 방의 문 옆 바닥에 있는 신문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다음 날 아침까지 신문으로 앞을 가리고 있었다!

- (1) ▶ '바닥 위에'라는 뜻이므로 on이 알맞다.
- (2) ▶ at midnight 한밤중에
- (3) ▶ '밤 동안에'의 의미로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므로 전치사 during이 알맞다.
- (4) ▶ '~의 아래에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under이다.
- (5) ▶ '~쪽으로'의 의미를 갖는 것은 towards이다.
- (6) ▶ '~안에'의 의미를 갖는 것은 in이다.

5 해석 | 그녀는 정원에 서서 멀리 바라본다. 또 다른 강한 바람이 불고, 큰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집 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녀는 낮은 담을 넘는다. 그녀는 맨 팔 위에 떨어지는 첫 번째 빗방울을 느낀다. 그녀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계단을 오르고 계속 긴 복도를 따라간다. 마침내 그녀는 한 방에 도착한다. 그 방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의자 위에 누워 있고 그녀가 들어가지 고양이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린다.

- (1) ▶ '집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므로 전치사 towards가 알맞다.
- (2) ▶ '담을 넘어가는' 것이므로 over가 알맞다.
- (3) ▶ '그녀의 팔 위에' 떨어지는 것이므로 on이 알맞다.
- (4) ▶ '복도를 따라' 가는 것이므로 along이 알맞다.
- (5) ▶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이므로 on이 알맞다.
- (6) ▶ '그녀 쪽으로 돌아보는' 것이므로 towards가 알맞다.

Grammar **in** Writing


p.118

- 1** (1) We worked for 5 hours without stopping.
(2) There are a few bookstores along the street.
(3) You are one of the best qualified among the applicants.
- 2** (1) If you are under 20, you can't drink.
(2) My diary was in a drawer in the desk.
(3) She ran across the street to her children.
- 3** (1) Canada is the largest country in North America.
(2) Would you like to go to the party on Saturday?
(3) He walked towards the museum for half an hour.

- 4** (1) Some students fell asleep during the lecture.
(2) We traveled across France during the festival.
- 5** (1) I cleaned my room before going out to meet my friends.
(2) After smelling the food, she eats it.
(3) After reading the article, they talked about it together.
(4) Before leaving home, she looks at herself in the mirror.
- 6** (1) from here to Hong Kong by plane
(2) in the city center
(3) on the wall in my room
(4) between 10 a.m. and 6 p.m. during the summer
- 7** (1) He arrived at the hotel before midnight.
(2) Taekwondo will be more popular among foreigners in the 21st century.

- 1** (1) ▶ 숫자가 포함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므로 전치사 for를 이용한다. without이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가 이어진다.
(2) ▶ '~을 따라'의 의미를 갖는 것은 전치사 along이다.
(3) ▶ '셋 이상 중에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among이다. 「one of the + 복수명사」의 형태로 쓴다.
- 2** (1) 네가 20세 이하이면 술을 마실 수 없다.
▶ '~이하'는 전치사 under를 쓴다. '20세 이하'는 under 20로 나타낸다.
(2) 내 일기는 책상의 서랍에 있었다.
▶ '~안에'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in을 사용하여 in a drawer로 나타낸다.
(3) 그녀는 길을 가로질러 자신의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 '가로질러'의 의미이므로 across가 알맞다.
- 3** (1)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 북아메리카라는 넓은 장소를 나타내므로 전치사 in이 알맞다.
(2) 너는 토요일에 파티에 가고 싶니?
▶ '파티에 가다'라는 의미는 go to the party로 나타내고,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이 알맞다.
(3) 그는 30분 동안 박물관 쪽으로 걸어갔다.
▶ '박물관 쪽으로'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전치사 towards를 쓰고, '30분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치사 for가 필요하다.
- 4** (1) ▶ '강의 중에'라는 의미는 during the lecture이다.
(2) ▶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는' 것이므로 across France로 나타낸다.
- 5** (1)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내 방을 청소했다.
▶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방을 청소한 것이므로 before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before가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그녀는 음식 냄새를 맡은 후에 먹는다.
▶ 먹기 전에 냄새를 맡는 것이므로 after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after가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3) 그들은 기사를 읽은 후에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기사를 읽어야 하므로 **after**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after**가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4) 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는 거울을 본다.
▶ 거울을 보는 것은 집을 나서기 전이므로 **before**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before**가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6** (1) 비행기로 여기에서 홍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내용상 '~에서 ...까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와야 자연스럽다.
- (2) 나는 보통 시내 중심가에서 쇼핑을 한다.
▶ 쇼핑을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3) 내 방의 벽에는 거울이 하나 있다.
▶ 거울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는 것이 맞다.
- (4) 그 선물 가게는 여름 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 상점이 문을 여는 시간이 오는 것이 내용상 자연스럽다.
- 7** (1) 그는 자정 전에 호텔에 도착했다.
▶ '~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는 전치사 **at**이 알맞고, '자정 전에'의 의미는 전치사 **before**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 (2) 태권도는 21세기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유명해질 것이다.
▶ '세 사람 이상의 사이에'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among**이다. 세기 앞에는 전치사 **in**이 알맞다.



Actual Test

p.120

1 ② **2** ④ **3** ② **4** ③ **5** ④ **6** ⑤ **7** ⑤ **8** ③ **9** ①

10 above, below **11** at, for **12** ② **13** ③ **14** ②, ⑤

15 ② **16** ③ **17** ⑤

18 I have to come back home before 8 p.m.

19 We can see the stars at night.

20 The police chased after the thief on the street.

- 1** 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② 파티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③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자.
④ 나는 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⑤ 그녀는 19살에 학교를 마쳤다.
▶ 나머지는 시간을 나타내지만, ②는 장소를 나타낸다.
- 2** ① 호수 위에 보트 몇 척이 있다.
② 그는 배에서 사는 생각을 좋아한다.
③ 몇몇 십대들은 거리에서 춤을 춘다.

- ④ 너는 금요일에 도서관에 갔니?
⑤ 나는 비행기 안에서 유명한 작가 옆에 앉았다.
▶ 나머지는 장소를 나타내고, ④는 시간을 나타낸다.

- 3** A: 엄마, 어디 계세요?
B: 부엌에 있었다.
① 그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② 나는 이 사진 속의 몇 사람을 안다.
③ 기차는 10분 후에 떠난다.
④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⑤ 우리는 종종 여름에 해변으로 간다.
▶ 보기의 **in**은 장소를 나타낸다. ①, ③, ④, ⑤의 **in**은 모두 시간을 나타내지만, ②의 **in**은 장소를 나타낸다.
- 4** 문은 그의 얼굴 앞에서 완전히 열렸다.
① 숙제를 하기 전에 자지 마라.
② 콘서트 전에 나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한다.
③ 내 앞에는 햄버거 두 개가 있다.
④ 그는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신다.
⑤ 모든 학생들이 시험 전에는 초조해한다.
▶ 보기의 **before**는 장소를 나타낸다. ①, ②, ④, ⑤의 **before**는 시간을 나타내지만, ③의 **before**는 장소를 나타낸다.
- 5** ① 그는 다리 아래로 걸어가고 있다.
② 나는 탁자 아래에 그 상자를 놓았다.
③ 고양이는 10살이 안 되었다.
④ 방 한가운데에 탁자가 있다.
⑤ 한 노부인이 나무 아래에 서 있다.
▶ ①, ②, ③, ⑤에는 '~아래에'의 뜻을 갖는 **under**가 들어가지만, ④에는 **in**이 들어간다. **in the middle of** ~의 한가운데에
- 6** ① 나는 몇 개의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② 우리는 1월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것이다.
③ 새 장 안의 새는 슬퍼 보인다.
④ 뉴욕에는 마천루들이 많이 있다.
⑤ 나는 멀리서 비명소리를 들었다.
▶ 나머지 빈칸에는 **in**이 들어가지만, ⑤에는 **at**이 들어간다.
- 7** 너는 미장원에 얼마나 자주 가니?
▶ 방향을 나타내므로 **to**가 알맞다.
- 8** A: 실례합니다, 경찰관님. 6번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B: 놓쳤네요, 부인. 하지만 30분 후에 다시 한 대가 올 겁니다.
▶ 시간 앞에서 '~후에'를 나타내는 것은 **in**이다. **in half an hour** 30분 후에
- 9** 나는 직장에 가는 길에 그녀를 만났다.
▶ **on one's way to** ~로 가는 길에
- 10** • 팔을 어깨 위로 올려라.
•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졌다.
▶ '~의 위로'의 뜻을 갖는 것은 **above**이다. '~아래로'의 뜻을 갖는 것은 **below**이다.
- 11** • 나는 지금 바쁘다.
• 그는 저녁 식사 전에 25분 동안 뛰었다.

▶ '현재'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전치사 at이 알맞고, '~동안'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for가 알맞다. at the moment 현재

- 12** ① 도로를 따라서 많은 나무들이 있다.
② 나는 영화관 쪽으로 걸어갔다.
③ 학생들은 강을 가로질러 수영을 했다.
④ 우리는 종로에서 버스를 탔다.
⑤ 그녀는 산 위를 오르고 있다.
▶ ② '극장 쪽으로'의 의미이므로 for가 아니라 towards가 들어야 한다.
- 13** ① 그들은 한 달 동안 멕시코에서 여행을 했다.
② 일요일 밤에 TV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③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니?
④ 나는 3월부터 학교에 간다.
⑤ 너는 저녁 전에 집에 와야 한다.
▶ ③ '바닷속에'의 의미를 갖는 것은 in the sea이다.
- 14** ①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를 안다.
② 바닥에 앉아 있는 숙녀는 누구니?
③ 그림이 시계 위에 걸려 있다.
④ 그는 두 여자 사이에서 있다.
⑤ 나는 보통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
▶ ① '버스 정류장에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in 대신에 at을 써야 한다. ③ '시계 바로 위'가 아니라 '떨어져서 위에'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on 대신에 above를 써야 한다. ④ '두 사람 사이에'라는 의미이므로 among 대신에 between을 써야 한다.

- 15** ① 그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다.
② 너는 역에 언제 도착하니?
③ 우리는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④ 나는 오늘 우체국에 가야 한다.
⑤ 그는 일주일 동안 내 집에 머물렀다.
▶ ② '~에 도착하다'는 arrive at을 쓴다.
- 16** ① 그녀는 2002년에 한국에 왔다.
② 나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캐나다에서 살았다.
③ 우리는 5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④ 우리는 영국에서 왼쪽으로 운전한다.
⑤ 그는 아들과 벽을 따라 걷는다.
▶ ③ 구체적인 숫자를 동반한 말과 쓰이는 것은 for, 특정한 사건과 같은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것은 during이므로 during 대신에 for를 써야 한다.
- 17**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은 도로 끝에 있다.
• 그들은 아침 8시에 버스를 기다린다.
▶ at the end of는 '~의 끝에'라는 의미이고, 시각 앞에 붙는 전치사는 at이므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전치사는 at이다.
- 18** ▶ before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한다.
- 19** ▶ at night은 '밤에'라는 의미이다.
- 20** ▶ '거리에서'는 on the street로 나타낸다.



memo